

김 자 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올림머리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얼굴 이미지와 얼굴형을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 · 스타일리스트전공

한 현 정

논문 개요

개인의 이미지나 인상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다.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고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모니터 하려는 이러한 지각과 행동의지를 사회심리학에서는 인상관리, 즉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인지되는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려는 통제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미지관리’라는 용어로 더 익숙해져 있는 인상관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기관리의 한 부분이며 자기관리의 한 맥락으로 인식되고 개인 이미지컨설팅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재된 아름다움과 최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감각적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부위중 첫 번째로 인상형성의 초점이 되는 얼굴을 얼굴이미지, 얼굴형을 중심으로 올림머리에 따른 메이크업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론 1장에서는 올림머리와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올림머리의 디자인에 있어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서술함과 동시에 이해를 돕기 위해 업스타일 전문 자료인 <한성진의 up&up>을 활용하여 디자인 과정을 알아보았다.

본론 2장에서는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얼굴이미지(귀여운이미

지,우아한이미지,로맨틱이미지,캐주얼이미지,도시적이미지)와 6가지 얼굴형(마름모형,사각형,삼각형,역삼각형,타원형,둥근형)을 나열하고 형태를 분석하여 어울리는 스타일과 보완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론 3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각각의 모델들에게 이미지에 적합한 기법을 디자인한 과정을 표현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 고찰이나 전문 미용서적을 중심으로 하여 얼굴형과 얼굴이미지를 중심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앞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모색을 통하여 이미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과 방법	2
II . 본 론	3
1. 올림머리의 이론적 고찰	3
1)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	4
2) 서양의 역사적 배경	7
2. 올림머리에 따른 메이크업	13
1) 우리나라	13
2) 서양	25
3. 헤어디자인의 구성	42
1) 디자인의 구성요소	42
2) 디자인 과정	47
4. 헤어디자인 분석	53
1) 얼굴이미지에 따른 올림머리	55
2)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	58
5. 스타일 연구과정	64
III . 결 론	74

참 고 문 헌

ABSTRACT

그림 목 차

<그림 1> 질감표현에 의한 디자인	81
<그림 2> 가르마와 업스타일의 관계	84
<그림 3> 외형적 실루엣의 밸런스	94
<그림 4> 시농 위치에 따른 이미지 분석	95
<그림 5> 귀선의 매입과 노출의 이미지	15
<그림 6> 두상위의 웨이트 (볼륨)	85
<그림 7> 다양한 얼굴형에 보완해야 할 볼륨	46
<그림 8> 로맨틱한 이미지 디자인 과정	66
<그림 10> 도시적 이미지 디자인 과정	86
<그림 11> 우아한 이미지 디자인 과정	97
<그림 12> 귀여운 이미지 디자인 과정	27

<그림 1-1> 단군신화	5
<그림 1-2> 삼국시대 머리모양	5
<그림 1-3>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	5
<그림 1-4> 고려시대 기황후	6
<그림 1-5> 고려금속공예. 주악인물상장신구	7
<그림 1-6> 고려시대 엇은머리. 유운홍(1797~1859)의 기녀도	7
<그림 1-7> 영화‘스캔들’에서 조선시대 입술화장하는 모습	7
<그림 1-8> 조선시대 구입성수	7
<그림 1-9> 조선시대 호렵도	7
<그림 1-10> 조선시대 김홍도(1745~?)의 미인도	7
<그림 1-11> 엇은머리. 유운홍(1797~1859)의 기녀도	7
<그림 1-12> 가채. 이인문(1745~1781)	8
<그림 1-13> 신윤복(1758~?)의 미인도	8
<그림 1-14> 조선시대 대수머리	8
<그림 1-15> 조선시대 떠구지머리	9
<그림 1-16> 조선시대 새양머리	9
<그림 1-17> 조선시대 기녀나들이	9
<그림 1-18> 조선말 어여머리를 한 순종(1874~1926)비	9
<그림 1-19> 1905년 기녀	10
<그림 1-20> 근대 기생 모습	10
<그림 1-21> 독립운동가 김정연	10
<그림 1-22> 1950년대 김보애	10
<그림 1-23> 1950년대 ‘자유부인’	10
<그림 1-24> 1950년대 최은희	11
<그림 1-25> 1960년대 윤정희	11
<그림 1-26> 1960년대 태현실	11
<그림 1-27> 1960년대 김지미	11
<그림 1-28> 1970년대 박근혜	11
<그림 1-29> 1980년대 차화연	12
<그림 1-30> 1980년대 금보라	12
<그림 1-31> 1970년대 염복순	12
<그림 1-32> 1970년대 유지인	19
<그림 1-33> 1970년대 화장품 광고	13
<그림 1-34> 1980년대 화장품 광고	14

<그림 1-35> 1985년 황신혜	14
<그림 1-36> 1985년 김희애	14
<그림 1-37> 1990년대 김남주	15
<그림 1-38> 1990년대 박주미	15
<그림 1-39> 1990년대 화장품 광고	16
<그림 1-40> 이집트시대 여인	16
<그림 1-41> 그리스시대 요부	16
<그림 1-42> 그리스시대의 여인들	16
<그림 1-43> 그리스 화관과 머리장식	17
<그림 1-44> 로마시대 여인들	17
<그림 1-45> 로마시대 여인들	17
<그림 1-46> 로코코시대 풍빠드르	18
<그림 1-47> 로코코 마리 앙뜨와네뜨와 가족	18
<그림 1-48> 로코코시대머리모양	18
<그림 1-49> 1820년대 머리모양	19
<그림 1-50> 1820년대 머리장식	19
<그림 1-51> 19세기 빅토리아여왕	19
<그림 1-52> 1990년대 머리	20
<그림 1-53> 1920년 클라라보우	21
<그림 1-54> 1920년 결혼식	21
<그림 1-55> 1930년 마를렌느 디트리히	21
<그림 1-56> 1940년대 잉그리드 버그만	22
<그림 1-57> 1950년대 오드리 햅번	22
<그림 1-58> 1970년대 가발	23
<그림 1-59> 1980년대 브룩셀즈	23

표 목 차

<표 1> 얼굴구성요소	㉔
<표 2>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분석	㉔

I . 서 론

1. 연구목적

지 알포트(G. Allport)¹⁾는 잠시 동안 사람을 관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복잡한 정신과정을 자극하여 그 사람의 신용과 성실, 깔끔함, 우정, 노력, 또 그의 체질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지위와 직업, 국적, 키, 나이, 성별에 대한 분석은 아마도 30초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다. 신체의 우위 중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첫 번째 신체적 특성으로 타인들과의 대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흥미의 초점이 되고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다른 인상을 주게 된다. 얼굴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헤어스타일, 얼굴형, 얼굴의 선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미지관리’라는 용어로 더 익숙해져 있는 인상관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기관리의 한 부분이며 현대인들에게 총체적인 자기관리의 한 맥락으로 인식되고 개인 이미지컨설팅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재된 아름다움과 최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감각적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준다.²⁾

이에 이 논문에서는 얼굴 이미지와 얼굴형,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와 스타일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G.Allport.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1897.

주요저서. 성격:심리학적해석<Personality:A Psychological Lnterpretation>(1937)
성격의유형과성장<Pattern and Growth in Persorsonality>(1960)

2) 주경미. "이미지/인상관리에 대한 인식과 동기 연구" 건국대학교. 2005. p.2

2. 연구내용과 범위

자신의 신체부위 중 얼굴은 타인의 관점에서 첫 번째로 인상형성의 초점이 되어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다른 인상을 주게 되며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특징은 다르다.

왜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올림머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좀 더 나를 부각시킬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분위기를 파악해야한다.

그때의 상황조건이나 장소, 자신의 얼굴조건과 모발조건, 평소의 기호나 자신의 이미지 등을 파악하여 그에 적당한 스타일을 하도록 분석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올림머리를 해야 하는 행사에는 명절, 예식, 회갑연, 사진촬영, 파티, 연주, 개업식, 면접, 맞선 등 다양하다. 행사당일에도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다르며 장소도 야외, 실내, 사찰, 이벤트 장, 공공기관 등 장소적인 조건도 다른 이미지를 추구한다.

이런 조건들을 잘 고려하여 디자인 하여야 하며 그렇게 표현된 아름다움은 타인으로 하여금 여유와 신뢰감 호감도를 높이고 예의와 격이 높아지면서 성의를 돋보이게 하며 행동에 대한 격식을 행하는 등의 최고의 분위기를 연출하여 보다 나은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연구 범위로는 국내에서는 삼국시대부터 1999년대까지, 서양에서는 고대 이집트부터 1990년대까지의 올림머리의 역사를 이론적 고찰을 해보고 올림머리에 따른 메이크업을 다시 시대별로 알아보도록 한다.

논문준비 자료로는 미용학 서적과 단행본, 미용잡지, 패션잡지, 미용회보지등과 연구보고서 및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본 론

1. 올림머리의 이론적 고찰

올림머리는 영어로는 업스타일(up style)이라고 하며, 사전적으로는 ‘머리를 높이 빗어 올려 위에서 마무리고 목덜미를 드러내는 여자의 머리모양’이라 하며 결발의 한 형으로 머리의 땃음을 뜻하며 기술상으로 표현하자면 빗거나 깎아서 모발을 두상위에 가지런히 질서있고 아름답게 장식한 머리 모양이다.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그 시기를 증명할 수는 없다. 단지 문헌적 바탕 위에서 논하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2~3만 년 전 그 시대에 인류는 어떠한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으나 그때의 인류도 현재의 디자인 의미와는 무관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좀 더 미적 감각을 향상시켰다기 보다는 단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에 연연한 디자인 방법을 구사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디자인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한 디자인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행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³⁾

다음은 올림머리의 역사적 배경을 국내와 서양으로 나뉘어 시대 순으로 알아본다.

3) 강영숙.배영수.박정애.강선화.박숙경 공저 <웨딩헤어 디자인> (서울,훈미사,2004)
P.17

1)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

① 삼국시대

삼국 중 고구려는 중국과 지역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으므로 신라나 백제보다 문화의 유입이 빨랐다. ‘당서’⁴⁾에 보면 여인들이 건괘(가발)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고분벽화에서 고구려인들은 가발을 이용하여 크게 엮고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당서(舊唐書)의 기록을 보면 ‘신라 부인들은 머리를 뿔아 들렀으며 비단과 구슬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여인들은 엮은 머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모든 생활이 사치에 흘러 고려시대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신라의 패망이 사치풍조에서 비롯되었다하여 사치금압(奢侈禁壓)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고려가 신라의 정치, 경제, 군사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한 데다가 문화와 생활관습마저 계승하여 미용역시 진보하였다.

고려여인들의 모발형태를 살펴보면 송나라 사신 서긍⁵⁾이 기록한 ‘고려도경(高麗圖經)’의 문헌을 보면 “고려 부인들의 머리는 서민의 딸은 시집가기 전에 홍라(紅羅)로 속하고 그 나머지는 아래로 늘어뜨리고 남자도 같으나 검은 끈으로 대신한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신분에 따라 치장하는 정도가 달랐으며 특수한 신분과 기생들의 화장은 질게 하였고 교방에서 화장술을 가르쳤으며 머리를 틀어 올려 동백기름과 아주까리기름 등으로 정돈하였다. 이때 장신구에 애용된 문양

4) 당서. 중국 당나라의 정사(正史)로서 이십오사(二十五史)의 하나.

5) 서긍. 자는 명숙(明叔). 중국 송나라의 문신. 고려도경<高麗圖經>

으로는 봉황, 용, 닭 등으로 정밀하게 조각된 은, 보석류 등의 금속제와 옥과 같은 광물을 활용하여 장신구로 제작하였다.

③ 조선시대

조선시대 초기에는 유교의 숭상으로 부덕(婦德)이 강조되어 부용(婦容)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의 표현이라고까지 정의되었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점잖은 용모를 여성미의 기준으로 삼았고 고려시대에 비하여 검소하고 간략해졌으나 미용은 더욱 세분화가 촉진되어 여염집 여성들의 생활화장과 기생·궁녀 등 특수층 여성의 의식화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이는 남성들의 이원화된 여성관에도 기인한다. 미용은 문헌기록이나 회화 등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이와 아울러 유교윤리를 생활의 기본으로 삼아 내외법이 강조된 나머지 자유연애와 외출이 금지되었다.

임진왜란 선조(宣祖) 때는 일본에서 발매한 아사노쓰유(아침이슬)라는 화장수(化粧水)광고문안 가운데 조선의 최신제법(最新製法)으로 제조한... 이라는 구절이 있고 보면 조선시대 중기까지 화장품 제조기술은 높은 수준이었음이 분명하다.

④ 근대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신문명에 의한 미용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한일합방 이후부터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 각지를 순방하거나 공부하고 돌아온 신 여성들에 의해서 급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 이숙종 여사의 높은 머리와 김활란 여사의 단발머리가 우리나라 여

성들의 두발형 일대 선풍을 일으켰으며 1933년 일본 영화배우를 하던 오엽주 여사가 일본에서 미용연구를 하고 돌아와 화신미용원을 개설하면서 1937년경부터 퍼머넌트 웨이브가 성행하였다. 1940년대에는 양적인 규모와 질적인 고도화가 추진되었으며 한복과 양장에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로 우아한 올림머리가 이 시기에 유행하였다. 또한 교육산업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촉진되었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혀 주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여성들은 의상도 양장을 추구하며 머리도 서양의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는 컬러TV의 등장으로 색상혁명이 시작되면서 유니섹스(unisex) 모드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헤어스타일은 남과 여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는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긴 모발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하고 개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시대였다.

1990년대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의 개인화로 중상계급이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고급화, 전문화되고 머리도 손질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스타일과 염색, 탈색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를 외국의 기능과 스타일을 유입하여 수련한 시대라고 본다면 2000년대는 한국적 이미지를 강화시킨 시대라 할 수 있다. 조형적인 의미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어떠한 특수의 계층의 전유물에서 모든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사회적 창작 활동이므로 대중들의 이미지에 적합하고 실용적이며 경제성 있는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2) 서양의 역사적 배경

① 고대이집트

고대 문명이 융성하였던 이집트인들은 적도 바로 아래 나일강 유역에 위치한 매우 더운 기후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더운 기후로 인해서 두발을 짧게 깎거나 밀어내고 그 위에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대용물로 모자나 가발을 즐겨 사용했으며 축제 때에는 언제나 가발을 환상적으로 장식하여 쓰고 즐겼다.

가발의 재료로는 마, 양모, 종려나무 잎에서 채취한 섬유와 말의 갈기 등이 있었으며 귀족이나 부유층은 인모를 이용한 가발을 사용했다. 이것이 외관상의 신분을 결정지어 주었다.

머리치장을 위한 재료로 초기에는 청동과 철이 사용되었으나 후기들어 금과 보석류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화려한 색상의 장신구를 애용하였다. 또 금사가 가미된 다채로운 문양을 이용했을 정도로 신체의 치장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하였고 빗이나 거울같은 미용도구도 발달하였다.

또한 그들의 자연적인 흑색 두발을 다양하게 보이기 위하여 헤나(henna)라는 식물성 염료를 진흙에 개서 모발에 발라 건조시켜 머리카락을 물들이기도 했고 미목이나 코올등도 모발의 색을 바꾸는데 사용하였다.

② 그리스시대

그리스인들의 머리모양은 가장 순수하고 고전적이었다. 이 때의 조각상의 머리 모양은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기본스타일과 유사하며 조각상들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밸런스가 매우 좋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아름답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자연적인 미를 숭상하며 금발을 아름답게 여겼고 그대로의 미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남녀모두 머리를 기르고 자연스럽게 틀어 올리면서 머리쓰개와 핀을 사용하여 장식을 했다.

또한 여인들에게는 머리 모양이 생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 일종의 장식품으로 상(喪)이나 슬픈일이 있을 때에는 머리를 자르고 부정한 여자의 경우에는 벌의 의미로 남편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등 머리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 여성들은 원래 갈색이나 금발로서 블론드(blond) 칼라의 두발이 많았지만 종종 두발을 염색하거나 또는 염색된 가발을 썼다. 특히 붉은 색 계통의 가발을 선호하였고 아테네의 부인들은 두발을 파랗게 물들여 금, 백, 적색의 파우더를 뿌렸다고한다. 더욱이 모발 장식의 다양성을 가지기 위해 자연의 꽃이나 타조의 깃털 등을 사용하여 더욱 아름답게 꾸몄다.

③ 로마시대

로마시대는 그리스보다는 세련되지 못하였으며 간단하고 창조성도 부족하였지만 그 시대의 건축양식에 영향을 받아 조형미가 월등하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물망을 적용시키고 컬이나 웨이브를 많이 이용하여 아름다웠으며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헤어스타일을 위해 소비할만큼 미에 대한 욕구는 대단했다.

관습으로 죽은 친지들의 제사에서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바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발이 발달되었는데 가발은 여러 가지 색깔뿐만 아니라 꽃과 뱀, 별 등으로 신분에 따라 몇 가지 모양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이름을 불렀다.

④ 중세시대

중세시대에는 종교가 생활과 관습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시대로서 가발사용, 화장, 목욕이 일부 금지 시 되었으나 다른 일부에서는 미용연구를 하는등 연금술, 야학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오늘날 수준 높은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⑤ 르네상스시대(16세기)

르네상스는 중세부터 근대에 있어 미술과 문화의 부흥을 의미한 유럽의 청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황금시대이다. 이 시대 여자들은 중세 때 머리를 감추기 위한 장식들이 없어지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염색을 하거나 모발에 윤이 나게 하고 향기로운 분을 사용하였다.

머리색으로 신분을 구별하기도 하였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은 70~80개 정도의 가발을 사용했고 궁중복을 입을 경우 왕관과 어울리게 올백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우아한 스타일에 머리를 뒤로 살짝 묶어 보석이나 구슬로 장식한 헤어네트⁶⁾로 덧씌우고 후광을 만들어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뒷머리를 방추형으로 철사를 넣어 구부려 머리를 받치기도 했다.

이 시대는 머리모양이 많이 과장되었으며 가발이나 부분가발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대중적으로 유행시켰다.

⑥ 바로크시대(17세기)

이 시대 권력의 중심은 프랑스 궁정이었는데 풍부한 창조성과 감각으로 헤어

6) 헤어네트(hairnet). 머리카락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자들이 머리에 덮어쓰는 그물.

디자인의 중심지로 돋움하였고 가장 흥미로운 시대이다.

1673년에는 2100명의 이발사, 가발사의 조합이 파리시에 설립되었다. 이것이 미용사가 사회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활약하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머리를 손대기 시작한 샹 빠뉴는 최초의 남성미용사로 파리에 첫 이발소 간판을 낸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프랑스 루이 13세 시대에는 젊은 왕이 자신의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가발을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가발이 상류사회에서 유행하였으며 유행한 남자 머리는 긴 머리를 어깨까지 떨구는 머리 모양이었다.

⑦ 로코코시대(18세기)

로코코시대에 이르자 궁정 문화는 퇴폐의 극에 달했다. 유행이 이따금 과도한 부조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머리의 경향이 극에서 극으로 이르는 시기였다.

루이 15세의 애인 풍파두르 부인은 후세에 허영심과 낭비의 화신이란 혹평까지 받기도 했으나 살롱을 일으켜 문예의 비호자가 되었고 머리형에 있어서도 풍파두르 머리모양(이마에서 앞머리 전체를 높게 차양처럼 치켜올려 돌출시킨 높은 트레머리)은 가장 유명하여 여러 가지 의미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후세에 이 시대를 대변하는 모델이 된 거대한 헤어스타일을 탄생시켰다.

그녀는 타고난 호기심과 허영심에 천재라는 평이 있던 결발사 레오나르의 재능이 어우러져 머리는 하늘로 솟아오를 듯이 빗겨 올려지고 그 위에 생화, 깃털, 레이스, 리본, 보석 등과 함께 때로는 모형선 까지 얹는 광기의 시대를 탄생시켰다. 당시 가발에 파우더를 뿌려 헤어스타일에 포인트를 주었는데 파우더의 색상

은 흰색과 회색이 유행하였고 이 헤어스타일은 예술적이고 환상적인 기교에 있어서 극치에 이르렀다.

가발의 재료로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말, 소, 염소, 송아지 꼬리털, 털실, 철사 등이 이용되었으며 르그로(legros)라는 젊은 여성에게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헤어스타일을 가르쳤는데 이 여성의 최초의 헤어 모델이 되었다..

⑧ 19세기

문화적인 면에서 대혁명이 터져 세상이 동란에 휩싸이자 머리의 파우더, 가발, 인조모발, 분가루, 조화등이 일시에 모습을 감추었고 나폴레옹 3세⁷⁾ 시기에 는 간단하면서도 압전한 스타일이 유행했다.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오르자 그리스풍의 영향을 받은 둥글게 말아 자연스럽게 어깨로 내려뜨리는 머리 모양이 유행하였다.

1875년 마셀 꼬라또우가 컬을 만들기 위해 마셀 아이론을 발명해 부인의 결발에 대한 신기원을 이룩하였고 1889년 프랑스에 미용학교가 설립되었다.

⑨ 20세기

1901년에서 1910년경까지 영국 시대의 머리형으로 후광처럼 보이는 오레올(15세기)풍과 풍빠두르(18세기)풍의 머리 형으로 앞머리가 높고 조금 앞으로 나왔으며 가운데 가르마로 양 머리를 나누어 양 옆을 부풀게 하고 하트형으로 새롭게 정리한 머리 모양이 유행하였다.

7) 나폴레옹3세(1808~1879). 프랑스제2공화국 대통령(재위1850~52),제2제정황제(1852~71). 정식이름 Charles-Louis-Napoleon Bonaparte

1906년 퍼머넨트 헤어 웨이브(permanent hair wave)가 런던의 찰스 네슬러⁸⁾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고 1930년대 중반에 중간 길이의 긴머리가 곱실거리며 목덜미를 덮는 스타일과 머리에 웨이브를 주거나 고대한 후 올림머리를 하여 목덜미를 노출시키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우선 퍼머넨트를 하여 웨이브를 주거나 고대하여 컬을 만드는 기본적인 작업을 한 후 머리를 적당한 높이로 올려 작은 모자에 생화나 조화로 장식하였다.

1930년대 초부터 전 세기에 유행하였던 꼭지 머리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머리형은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적어 더 납작해진 스타일이었으나 가르마를 탄 후 굽은 컬로 약간의 볼륨감을 주었으며 목 부분과 귀를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1940년 이후에는 앞이마에 곱슬거리는 컬이 양옆으로 갈라져 나와 있는 것과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양 옆의 컬이 귀를 덮어 늘어뜨리고 목덜미 중앙에서 둥글게 뒷머리를 말아 붙여 꽃을 다는 머리 모양이 유행하였다.

1850년대 머리의 양옆은 평평하게 웨이브를 만드는 마셀 웨이브와 비슷한 방법이 나타났으며 19세기 후반에 여성의 머리모양은 둥글게 감거나 뿔은 머리를 높이 올려 두상이 가름하게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8) Charles Nessler. 1905년경 영국런던에서 사교계의 유명한 미용사. 알카리성의 수용액으로 적신 모발을 막대기에 감아 열을 가하여 permanent wave를 얻는 것에 성공하였다.

2. 올림머리에 따른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머리모양과 함께 인간의 시초 점에서부터 자신의 보호본능에 의한 방법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므로써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는 변신을 거듭하면서 동시대적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아름답다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며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올림머리에 따른 메이크업을 국내와 서양으로 나뉘어 시대순으로 알아본다.

1) 우리나라

① 선사시대

‘화장’이란 말 자체보다는 ‘장식’‘단장’‘야용’이란 말들이 먼저 쓰여졌고 한말에 개화가 되면서 외래문물이 들어오면서 화장이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 자체의 역사처럼 그리 짧지는 않은 듯하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가 썩과 마늘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않게 동굴을 나가지 말고 백일을 있는 내용이 있다. 썩과 마늘이 미백효과가 있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유럽등지에서 흰 피부를 위해 인체에 해로운 백분을 바를 때 그 훨씬 전부터 우리나라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재료를 가지고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주술적인 노력인 듯하다.

또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 ‘북방에 거주하던 읍루인들은 겨울에 돼지

기름을 얼굴에 발랐다'남방에 거주하던 변한인들은 얼굴에 문신지창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읍루나 변한은 삼국시대 이전 한반도에 있던 나라이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이미 삼국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화장하는 기술이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단군신화



<그림 1-3>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



<그림 1-2> 삼국시대 머리모양

② 삼국시대

머리카락을 뒷머리로부터 앞으로 감아올려 앞머리 가운데 꽂아 얽은 얽은머리, 뒤통수에 낮게 머리를 튼 쪽머리, 양쪽 귀옆의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풍기명머리, 뒷머리를 낮게 머리카락을 묶은 증발머리가 있다. 뒤통이는 화려하고 장엄한 헤어디자인을 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대의 헤어 업스타일에 있어서 머리다발을 고정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 풍습은 청결을 강조하고 짙은 화장을 피하는 세련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김유신의 누이가 얽은 화장을 했고 화랑들도 아름다운 육체를 위해 화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시대에는 잇꽃으로 연지를 만들고 이마와 뺨과 입술에 발랐으며 백합꽃의 붉은 수술로 색분을 만들어 칠하였다.

삼국시대에는 화장품 제조기술이 뛰어나 일본과 중국에 그 기술을 전하였고 화장기술 역시 고도의 수준에 도달했었다.

고구려는 당시의 고분으로 보이는 쌍영총 벽화에 남겨진 남녀의 입술과 볼이 붉게 화장된 것으로 보아 5~6세기경에 이미 연지 화장을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으며 삼국사기에 의하면 무녀와 악공이 이마에 연지를 동그랗게 화장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중국문헌에 의하면 백제인의 화장 경향은 분은 바르되 연지를 바르지 않는 다라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옅고 은은한 화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쌀 같은 곡식의 분말, 분꽃씨앗의 가루, 조개껍질 뿜은 가루 등 백분의 사용으로 얼굴을 희게 해 결점을 감추었다. 그러나 밀착력이나 곱게 번지는 퍼짐성이 약해 납을 사용한 연분을 제조하게 되었는데 이는 화장품 발달사에

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입술과 볼을 치장한 연지는 대중화된 화장품으로 홍화(잇꽃)로 만들어졌고 굴참나무 혹은 너도밤나무 목탄을 이용해 눈썹 모양을 그리기도 했다.

③ 고려시대

새양낭자, 쪽진머리, 엷은머리 형태로 표현하였고 귀부인 사이에는 가체를 사용하고 비녀를 사용하였다. 비녀는 봉황 또는 닭머리 모양으로 조각하였고 화관과 족두리도 있었다. 고려초기 태조 왕건의 지시로 중국의 기녀제도를 모방하여 기방을 설치하는 등 기녀를 제도화 시킴으로서 여러 가지 화장을 진하게 바르는 등 기생의 분대화장이 유행하였다. 반면 여염집 부인들은 이러한 경향을 기피하는 반작용으로 짙은 화장을 즐기지 않아 분은 사용하나 연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不喜塗澤 施粉無朱) 버들잎 같은 가늘고 아름다운 눈썹을 그리는 등 옅은 화장을 함으로써 기생과 구분되고자 하는 비분대화장을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기황후⁹⁾가 있다.



<그림 1-4>
고려시대 기황후



<그림 1-5> 고려금속공예, 주악인물상장신구



<그림 1-6> 고려시대 엷은머리

9) 기황후. 원(元)나라 순제(順帝; 惠宗)의 제2황후. 고려 기자오(奇子敖)의 딸로 몽골 이름은 완자홀도(完者忽都)이다

④ 조선시대

중국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가체를 사용하여 높게 쌓고 화려하게 꾸몄다. 첩지와 뿔잠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대표적인 머리로는 엷은머리, 새양머리, 뿔은머리, 쪽진머리, 첩지머리, 어여머리, 대수(大首)머리가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유교의 숭상으로 부덕이 강조되어 내면의 아름다움과 점잖은 용모를 여성미의 기준으로 삼아 표면적인 얼굴화장은 위축되었으며 부녀자들은 색조화장보다 평상시의 기초화장에 주력하였다.

의인소설(擬人小說)인 <영용국전(女容國傳)>이 여성의 화장을 국가 정치에 비유하여 권장하고 있고 화장품과 화장도구가 18종이나 등장하는 점이나 숙종(肅宗:재위 1674~1720)연간에 화장품 행상인 매분구(賣粉)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화장품의 생산·판매가 산업화할 조짐을 보일 정도로 다양하게 대량 소비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더욱이 일시적이긴 하나 궁중에 화장품 생산을 전담하는 관청인 보염서가 설치된 적도 있었다.



<그림1-7> 영화 '스캔들'에서 조선시대 입술화장하는 모습



<그림1-8> 조선시대 구입성수



<그림1-9> 조선시대 호령도



<그림 1-11> 엇은머리. 유운홍(1797~1859)의 기녀도



<그림 1-12> 가채. 이인문(1745~1781)



<그림 1-13> 엇은머리. 신윤복(1758~?)



<그림 1-14> 조선시대대수머리



<그림 1-15> 조선시대 떠구지머리



<그림 1-16> 조선시대 새앙머리



<그림 1-17> 조선시대 기녀나들이



<그림 1-18> 조선말 어여머리를 한 순중(1874~1926)비



<그림 1-19> 1905년 기녀

⑤ 근대

개화기이후 헤어스타일은 어깨선보다 짧은 단발머리에 퍼머넌트(permanent)를 하여 옆 가르마를 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헤어디자이너들의 감성과 감각이 빛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커트와 퍼머넌트 기법이 개발되었고 굵고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스트레이트 퍼머넌트가 선호되었다.

1890년 관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최초의 화장품 박가분이 출시되었으며 19세기 전반기에는 여러색으로 퍼 바른 헤비 메이크업이 선보였으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메이크업 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살려주는 화장법이 유행이었고 후반기에 와서 내츄럴한 분위기로 흘렀다.



<그림1-20> 근대 기생 모습



<그림1-21> 독립운동가 김정연(1895~)

1910년 서양 립스틱이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이름은 ‘구찌베니’였다. 예전에 립스틱을 ‘베니’고 부르는데 이는 일본어로 빨간색을 지칭하는데서 유래된 것이다. 다른말인 루즈는 프랑스어의 후즈(rouge, 붉은)에서 나온말로 역시 붉은 립스틱을 일컫는 말이다.

1930년대는 거친피부에서 윤기있고 탄력있는 피부를 선호하는 화장을 하였고 일본 유학생 오엽주가 종로 화신 백화점에 처음으로 미장원을 개업하고 새로운 메이크업 테크닉과 바니싱 크림 등의 신식 화장품을 소개하였다. 또 그는 입술 연지를 아랫입술에만 빨갱게 바르고 눈썹을 초승달 모양으로 그리는 화장법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1950년대 색조화장품의 본격화로 다양한 칼라가 개발되면서 메이크업 뿐 아니라 헤어, 의상에 걸쳐 전반적으로 강한 칼라와 개성이 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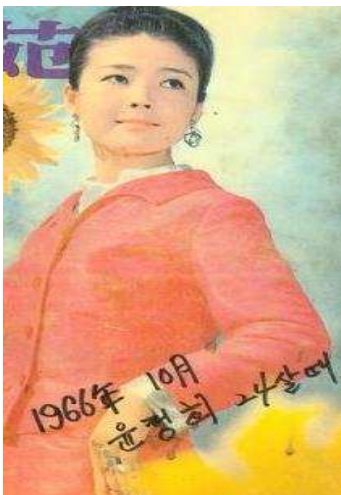
<그림 1-22> 1950년대 김보애



<그림 1-23> 1950년대 영화, '자유부인'



<그림 1-24> 1950년대 최은희



<그림 1-25> 1960년대 윤정희



<그림1-26> 1960년대 태현실



<그림 1-27> 1960년대 김지미



<그림 1-28> 1970년대 박근혜



<그림 29> 1980년대 차화연



<그림 1-30> 1980년대 금보라

1960년대 초에는 앞머리와 귀 양옆의 높이를 주어 귀가 반쯤 나오는 길이로 둥글게 마무리한 그라데이션 보브스타일인 ‘듀오라인’으로 시원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표현 했으며 올림머리가 유행하였다.

1960년대는 약간 핑크색이 들어있는 피부색에 눈썹을 두껍게 그리거나 아예 눈썹을 밀어버리고 속눈썹을 아래 위로 진하게 붙이고 마스카라를 많이 발라 눈을 강조했으며 불터치는 핑크빛이 도는 색으로 얼굴 앞쪽을 중심으로 그려 전체적으로 같은 인상으로 표현했다. 입술은 입술 선을 강조하고 흐린 핑크 펄이나 빨간색이 대유행했다.



<그림 1-31> 1970년대 염복순



<그림 1-32> 1970년대 유지인



<그림 1-33> 1970년대 화장품광고

1980년대에는 화장품에 관한 기술이 개발되고 색상이나 종류 면에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었고 화장의 분위기가 가벼우면서 눈썹을 두껍게 그리고 입체감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말경에는 깔끔한 분위기가 강조 되었고 눈과 입술이 포인트가 되어 개성을 살려 한곳만을 강조하는 원 포인트 (one-point)메이크업이 대중화되었다.



<그림 1-35> 1980년대 화장품광고



<그림 1-36> 1985년 황신혜



<그림 1-37> 1985년 김희애



<그림 1-38> 1990년대 김남주



<그림 1-39> 1990년대 박주미



<그림 1-40> 1990년대 화장품광고

2) 서 양

① 고대 이집트

이집트시대에는 더운 기후로 인하여 가발을 착용했으며 장식품을 많이 사용했고 가발은 그물로 된 모자에 가발 재료를 땀거나 엮어서 사용했다. 두껍고 뾰뾰한 형질으로 된 피라밋 모양의 머리수건을 사용했는데 이를 커어치프(kerchief)라고 하였으며 왕이나 여왕이 사용했던 커어치프는 크래프트(klaft)라고 불렀다

사회적인 계급이나 신분을 떠나 종교적인 의미와 신체를 지키고 외부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식 용도로 몸의 치장이 보편화 되어 화장으로서 강한 장식욕을 나타냈는데 메이크업의 초기 원료인 헤나나 백납등을 사용하여 분을 만들고 볼연지와 입술연지를 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신체장식은 오늘날에도 문화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눈은 상징적으로 검게 그렸으며 크게 확대하는 코올(koh)을 사용했다. 당시의 이집트여왕 클레오파트라(Cleopatra)는 당대 최대의 여신 상이었으며 화장술 또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피부 톤은 희게 하는데는 백납을 사용하였고 적갈색의 염료와 이끼에서 뽑아낸 보랏빛 염료등을 발랐으며 눈 위는 검은색으로 눈 아래는 공작석을 이용하여 초록색으로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1-41> 이집트시대 여인



<그림1-42> 그리스시대 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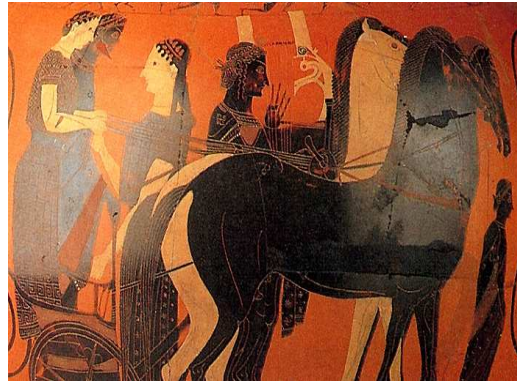
② 그리스시대

일반적으로 머리를 풀어내려 목에서 자유롭게 묶는 형태가 유행하였으나 후기에는 화려한 의상과 함께 머리장식도 복잡해져 머리를 뒤로 틀어 올려 그물이나 리본, 긴 밴드로 묶거나 머리쓰개를 쓰고 핀을 꽂는 형태를 하였다.

그리스시대에 들어오면서 화장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마신과 종교에서 벗어나 학문적 원리에 기초를 두게 되었다. 그리스 여인들은 얼굴에 백납을 새 하얗게 바르고 눈은 검정색 코올로 강하게 강조하고 입술에는 주황색 색조를 발라 화장했고 목욕을 즐겼으며 다양한 장식법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여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에서 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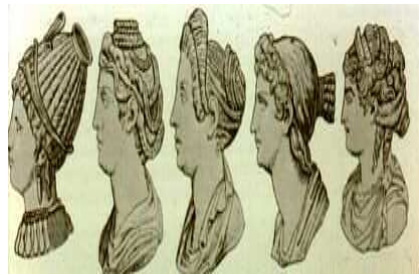
<그림1-43> 그리스시대의 여인들



<그림1-44> 그리스 화관과 머리장식. B.C530년 바티칸 그레고리노메트르스코미술관 소장



<그림1-45> 로마시대 여인들



<그림1-46> 로마여성들의 머리장식



<그림 1-47> 로마시대 결혼식



<그림 1-48>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상

③ 로마시대

가발과 땀은 머리를 사용하였고 뒷머리는 땀아서 늘어뜨리거나 둥글게 말아서 쌓아 올렸다. 앞머리는 짧은 쉼 모양의 웨이브와 뒷머리는 여러 가닥으로 땀아서 들들말아 올린 모양으로 단조롭고 산뜻한 머리형인 오르비스 스타일과 로마시대의 대표적인 머리형으로 초생달 형의 프레임을 앞머리에 세워서 그 위에 쉼을 쌓아 놓거나 앞머리를 짧게 잘라 이마를 반쯤 드러내는 옥타비아누스¹⁰⁾의 머리 모양이 대표적이다.

여성들의 머리는 가발과 땀은 머리를 사용하여 위로 틀어올려 고정시키거나 머리 둘레에 둥글게 말아 쌓아 올리는 정교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로마시대는 그 어느 때 보다는 호사스러움을 즐겼는데 귀족층의 남성들은 증기, 향유, 털 깎는 것이 유행(이때가 면도의 시초)하고 여성들은 우유와 포도주로 마사지를 받았으며 오늘날도 여성의 주된 관심인 흰 피부를 굉장히 선호했다.

④ 중세시대

자연스러운 웨이브보다 머리에 쓰는 관이나 장식을 중요시했으며 머리를 중앙에서 나누어 땀아 양귀를 덮어 정돈하여 머리 전체나 양 옆의 땀은 머리에다가 금, 은, 견사와 보석으로 장식한 그물망(net)을 덮기도 하였다. 이러한 머리형은 후기에 좀 더 거대하게 변하면서 양 옆의 머리를 달팽이 모양으로 감아올려 호화로운 그물망을 쓰거나 샤프롱(chaperon)을 사용하였으며 장식적인 관을 쓰고 다시 베일(veil)을 늘어뜨린 형태를 하였다.

길게 땀은 머리에 금속이나 꽃 등으로 만든 둥근 관 모양의 필레(pillrt)를 장

10) 옥타비아누스,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재위 기원전30~14년)

식하기도 하고 딱딱한 원추형 모자위에 원형의 베일을 덮은 에냉(hennin)이 유행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끈 문화가 발달하여 가발과 끈을 교차시켜 머리를 돌려 감아 뿔았으며 터번이나 베일, 머플러 등이 유행하였고 겹겹이 돌려 감아 뿔은 머리나 머리 모양을 부풀려서 싱을 넣고 머리를 커 보이게 하는 스타일들을 주로 하였으며 금속 헤어밴드로 장식을 하여 가발과 어우러져 고급스럽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림1-49>
중세시대 에냉



<그림1-50> 중세시대 결혼식



<그림1-51> 중세시대 여인들

⑤ 르네상스시대(16세기)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궁중복을 입을 경우 왕관과 어울리게 올백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겨 우아한 스타일에 머리를 뒤로 살짝 묶어 보석이나 구슬로 장식한 헤어네트로 덧씌웠고 후광을 만들어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뒷머리를 방추형으로 철사를 넣어 구부려 머리를 받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오레올형이라하여 정중앙에서 가르마를 만들어서 이마 부분을 약간 부풀리게 하면서 뒤로 빗어 넘기는 시농스타일과 앞이마를 보이게 하고 꼭 맞는 모자와 둥근 모자인 발조(balzo)와 헤어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대표적인 주름선인 러프(Ruff)를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인간존중, 개성추구의 사회적 흐름으로 향장학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문예 부흥의 시기이다. 의학 부분에서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발전하면서 처방과 보호 차원에서 미용적 화장술로 개선되고 많은 새로운 색소들이 메이크업에 고루 쓰이게 되었다. 당시 엘리자베스 1세여왕은 얼굴은 흰 가면을 쓴 것처럼 창백하게 하고 볼과 입술에만 살짝 색을 주었다.



<그림1-52> 르네상스 여인상

⑥ 바로크시대(17세기)

여성은 앞에서 뒤로 빗어 넘긴 짧은 머리형이 17세기 초에 유행하여 부드러운 웨이브를 만들어 틀어 올렸는데 탑 부분이 작아 보이게 손질하였다. 이 후에는 온통 곱슬곱슬하게 작은 컬이 덮인 계단형의 머리형이 많았고 머리카락에 갖가지 컬러 파우더를 뿌려 갈색이나 연두색, 회색을 띤 흰색 등으로 착색하고 향수를 뿌렸다.

머릿속에 가발을 넣고 포마드(pomade)로 굳혀서 높이 빗어 올린 후에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아름다운 핀을 꽂는 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루이 14세¹¹⁾ 시대에는 귀족적인 의상에 따라 탑부분을 부풀게 하여 앞부분이 오르간 파이프와 같이 뾰뾰하게 서는 형태인(심지어 사다리를 놓고 만들기도 함) 풍땡주(fontange)라는 우아한 머리형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 의복의 높은 칼라(collar)의 영향이라 할 수 있으며 후기에는 칼라를 세우지 않는 플랫 칼라(flat collar)가 유행하여 어깨까지 내려오고 컬을 주어 풍성함을 나타내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앙클레즈(달걀노른자모양) 스타일, 카베츠(양배추모양) 스타일과 루이 14세때 유행했던 위틀뤼베를뤼 스타일의 머리형도 있었다.

바로크시대의 여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진한 화장을 하며 인형처럼 투명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백분을 사용하고 몸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강한 향수를 사용하였다. 볼화장은 핑크색이나 오렌지톤과 같은 강한 색으로 중앙을 둥글게 표현하고 입술은 모양과 색깔이 장미꽃 같은 작은 하트 모양으로 선명하게 강조하고 눈화장은 눈밑라인을 원으로 쌍거풀라인에는 펄이든 원료를 발라 강하게 표현하였다. 이시기에는 뷰티패치(beauty patch)라 하여 얼굴에 모양을 만들어

11) 루이14세(Louis le Grend monarque) (1638~1715). 재위 1643~1715.프랑스

붙이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림 1-53> 바로크 여인상



<그림 1-54>
바로크시대 머리모양

⑦ 로코코시대(18세기)

머리를 뒤에서 낮게 묶어 리본을 매거나 옆머리를 짧게 잘라 곁을 말고 뒷머리는 꼬라보라는 검은 태피터(taffeta) 주머니에 넣어 나비모양으로 묶은 머리형도 있었다. 18세기 초까지는 바로크시대의 풍뎡주형이 전성을 이루었으나 루이 14세 이후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빗어 넘기고 조화나 리본, 깃털 등으로 장식한 풍뎡두르(pompadour)형으로 옮겨진다.

이 시대에는 머리의 높이를 낮게 하고 뒤에서 한 묶음으로 묶거나 뺏아서 리본을 매거나 하는 피그테일(pigtail)형, 앞머리의 모발을 전부 이마에 모아 꼬아서 모난형으로 만들고 뒷머리는 어깨에 자유스럽게 하는 미르리튼형과 정면의 머리를 이어포인트(ear point)에서 이어포인트로 나뉘어 구분해서 느슨한 컬로 작은 패드나 쿠션을 주어 그 위에 흘러 내리는 마담뒤바리형, 공상적인 헤어 드레서의 극단적인 면을 풍자하는 스타일로 크리놀린선으로 된 많은 패드로 주름을 잡아 머리안에 넣었으며 프레임이나 와이어로 실을 심어서 채우는 아방 가르

드(Avant-Garde) 스타일등 여러 스타일이 유행을 하였다.

로코코시대 역시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였다. 많은 분을 발라 창백한 피부를 만들고 뺨의 위치보다 약간 아래쪽에 볼화장을 하였으며 장미 봉오리같이 깨끗하고 밝게 강조한 눈썹을 그리고 속눈썹이 유행되면서 쥐 눈썹을 이용한 속눈썹을 붙이고 다녔다.



<그림1-55> 로코코시대 여인



<그림 1-56> 로코코시대
뽕빠두르부인



<그림1-57> 마리 앙투아네트 가족

⑧ 19세기

1805년부터 한옆으로 묶는 방법으로 각각을 틀리게 하는 방법으로 묶어 올렸기 때문에 한 옆쪽은 붙여 고정시키고 다른 한 쪽은 쉼을 하여 부풀린 상태가 유행 하였다.

19세기 화장은 자연스러움과 흰 피부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이르러서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모습에 입술이나 볼에 연한 색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그림 1-58> 19세기 빅토리아여왕
(VICTORIA, 1891~1901, 재위 1937~1901, 영국)



<그림 1-59>
1820년대 머리모양



<그림 1-60>
1820년대 머리장식



<그림 1-62 > 1910년 테다바라
(THEDA BARA, 미국 1885~1955)



<그림 1-63> 1990년대 머리



<그림 1-64> 1920년
클라라보우
(CLARA BOW,
1905~1965 스웨덴)

⑨ 20세기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비교적 짧은 머리 스타일인 보브(bob)스타일과 비대칭 커트가 혁신과 창조적인 작품으로 선 보이거나 소녀들은 머리를 땀거나 포니테일(pony tail)로 묶어 리본으로 장식하고 1960년대에는 공식적으로 기하학적인 컷 디자인이 선보이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부피감 있는 스타일로 올려서 묶어 주는 매듭, 시뇽(chignon), 폴(fall), 브레이드(braid)등이 애용되었다.

1970년 전쟁 후 올림머리는 더 많은 머리다발로 싱을 넣어 가면서 유행이 계속되었는데 가짜 머리다발을 땀아 둥글게 엮고 앞쪽은 다른 다발을 땀아 관처럼 없었는데 그 후부터는 목선이 드러나는 차츰 가벼워진 올림머리를 하였다.

그리스 스타일과 제국 스타일을 혼합한 것으로 신(新)그리스형이 있는데 굽거나 가늘게 땀은 머리를 정수리 위에 엮는 작은 올림머리 스타일로 목선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1920년 아이홀 메이크업으로 눈썹부분의 하이라이트를 강조하고 검정과 흰색의 대비로 입체감을 나타냈다. 아이라이너는 길게 빼서 섹시한 느낌을 강조하고 속눈썹을 사용했으며 볼터치는 음영의 강조로 볼은 들어가고 광대뼈는 나와 보이게 하였으며 입술은 둥글고 볼륨감 있게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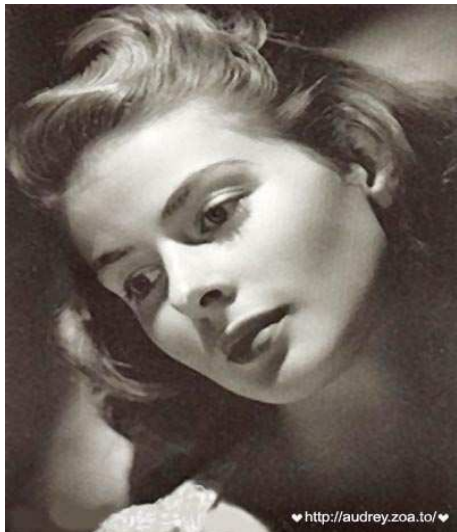
1930년대에는 파우더, 베이스, 루즈, 아이새도우, 펜슬 등의 화장품이 출현했고 화장술에서 피부화장으로 발전 거친 피부에서 윤기있고 탄력있는 피부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림 1-65> 1930년 그레타가르보
(GRETA GARBO, 스웨덴 1905~1990)



<그림 1-66> 1930년 비비안 리



<그림 1-67> 1940년대 잉그리드 버그만
(INGRID BERGMAN, 스웨덴 1915~1982)



<그림 1-68> 1950년대 오드리헵번
(AUDREY HEPBURN, 벨기에 1929~1993)

1940년대는 입체감있고 세련된 컬러가 개발되면서 오히려 단정하고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전문 모델의 등장으로 속눈썹과 마스크라를 중시하면서 일반여성들 사이에서도 모델들의 화장 기법을 모방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눈썹은 점점 두꺼워지면서 눈썹 앞머리보다 높은 상승형으로 완만하게 그려주며 피부색은 두껍고 입술과 볼은 더 이상 강조되지 않았다.



<그림 2-29> 1940년대 엘리자베스 테일러
(ELIZABETH TAYLOR, 미국 1932~)



<그림 2-30> 1950년 마릴린 폰로
(MARILYN MONROE, 미국 1926~1962)



<그림1-58> 1970년대 가발



<그림1-59 > 1980년대 브룩셴즈
(BROOKE SHIELDS, 미국 1965~)

1950년 전쟁복구와 문명개발의 시기가 공존하면서 색조화장품의 본격화로 다양한 칼라가 개발되면서 메이크업뿐 아니라 헤어 의상에 걸쳐 전반적으로 강한 칼라와 개성이 추구되었다. 눈의 화장이 포인트인데 아이라이너는 길게 하면서 아이홀은 밝게 하여 눈의 입체감을 부드럽게 강조하고 입술을 빨갛게 하는 매우 인위적인 메이크업이다.

1960년대는 눈 전체보다는 쌍꺼풀 주위에만 푸른색이나 옅은 옥색을 펴바르고 인조속눈썹과 눈꼬리를 길고 올라가게 쌍꺼풀 끝이 접이하도록 연출한 아이라인과 속눈썹을 바짝 올리는 마스카라로 눈을 크고 아름답게 표현하였으며 밝은 피부톤에 눈썹을 밀어 문신을 하거나 하여 약간은 두껍게 그리고 입술은 투명하거나 핑크색을 사용하고 육감적 입술을 만드는 펄도 유행하였다. 볼터치는 핑크계열을 중심으로 소녀같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1970년대는 세계적인 불황기로 휴머니즘을 강조한 반전운동과 핑크스타일이 성행하였고 대중매체의 활성화로 메이크업 역시 정형화되었다. 보편적으로 산뜻하고 희며 자연스러운 피부톤에 가늘고 여성스러운 아이라인과 핑크베이지의 볼화장등 투명색으로 개성을 유도했으며 긴 인조속눈썹과 아이홀만 강조된 유형이다.

1980년대의 여성상을 컬러화한 메이크업은 여성의 상위시대를 화려하고 다양한 컬러(황금,노랑펄,자주,갈색,오렌지)혁명이 강조되어 화장으로 연출되기도 하였다.

매트한 느낌이 주를 이루며 질감을 통해 특징을 측정하여 투명감을 살리는데 중시했고 흰색이 많이 포함된 광택없는 색조화장을 했다. 눈썹을 강하게 그리고 입술은 주홍, 빨간색으로 표현하며 갈라 마스크라가 등장했고 소피마프소처럼 살색, 복숭아색, 연핑크색, 연갈색등을 이용한 네츄럴 메이크업 경향도 보였다.



<그림 71> 1960년대 소피아로렌
(SOPHIA LOREN, 1934)



<그림 73> 1970년대 바바라바흐
(BARBARA BACH, 미국 1947~)



<그림 72> 1960년대 브리짓트바오르드
(BRIGITTE BARDOT, 프랑스 1934~)



<그림 74> 1970년대 알리 맥그로우
(ARI MACGRAW, 미국 1938)



<그림 75> 1970년대 트위기
(TWIGGY, 영국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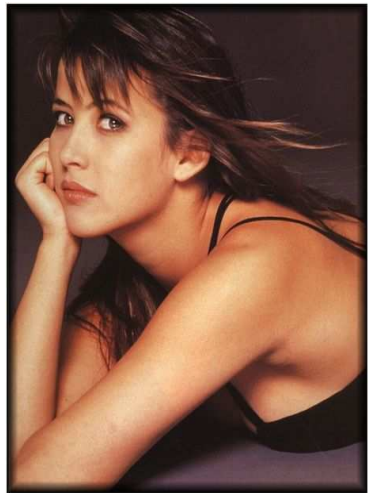
<그림 76> 1980년대 브룩셴즈
(BROOKE SHIELDS, 미국 1965~)



<그림 2-38>1990년대 캐서린제타존스
(CATHERINE ZATA-JONES, 영국1969)



<그림 78> 1990년대 캐서린제타존스
(CATHERINE ZATA-JONES, 영국1969)



<그림 2-37> 1990년대 소피마르소
(SOPHIE MARCEAU, 프랑스 1966)



<그림 80> 1990년대 소피마르소
(SOPHIE MARCEAU, 프랑스 1966)

3. 헤어디자인의 구성

1) 디자인의 구성요소

헤어스타일이란 고객의 두상과 얼굴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테크닉(technique)으로 고객에게 아름다운 미용이미지를 창조하는 헤어디자인의 한 형태이다.¹²⁾

올림머리는 모발을 두상에 올려 갖가지의 모양을 만들어 핀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우아함과 여성스러움, 귀여움, 성숙함, 깔끔함 그리고 로맨스를 묘사하는 예술형식이다. 디자인이란 단지 모양을 조합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를 계획하는 것이다. 모양과 방향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긴 머리처럼 묶어서 올리는 스타일을 결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려 묶거나 붙이는 방법은 고대 그리스시대에 발전하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대개 긴 모발을 매는 것, 묶는 것부터 시작된 올림머리는 수단에 따라 동서양간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생활의 필요에 따라 활동적인 것을 원하면서 시작되었다.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형태,(Form),질감(Texture),칼라(Color)의 세가지 구성요소를 들 수 있다.

첫째. 형태는 인간의 감각 중 시각과 촉각에 의해 지각되므로 형태의 의미를 시지각과의 관계성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형태를 ‘어패런트 이미지(apparent image)’라고 한다. 즉 형태의 의미란 그 원 대상에 대응해서 성립하는 지각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형태의 디자인 원리로는 균형(대칭,비대칭), 비례, 리듬(반복, 전이), 통일, 강조, 조화, 대비로 나누어진다.¹³⁾

헤어디자인에서는 모양을 나타내며 윤곽선이나 외곽의 실루엣에 의해서 결정

12) 강남순.“신부업스타일의 시술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5. p.5

13) 임연웅. <디자인 총론> (형설출판사, 2001), p.164

되며 모양과 크기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구성요소에 의해서 완성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제한의 창의적인 선택으로 전체 형태를 분석하여 디자인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질감은 실제로 만져서 알 수 있는 촉각적 질감과 눈으로 보아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 질감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헤어 디자인에 있어 질감이란 머릿결(모질)을 말하는데 촉각과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헤어 표면의 질이다. 머릿결로서 질감은 마무리 작업 시 스타일링 테크닉의 형태에 다양한 변화로서 색, 컬, 웨이브 모발의 방향등을 나타낼 수 있다.

질감은 눈에 보이는 표면의 질이나 모양으로 매끈한 느낌이나 패턴화된 느낌으로 구분지어진다. 매끈한 느낌으로는 고리(Loops),말기(Roll),직모(Straight Hair),가 있고 패턴화된 느낌에는 땃기(Braids),꼬기(Twist),컬진머리(Curly Hair),겹치기(Overlap)가 있고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활용하는 혼합형도 있다. (그림1참조)

꼬기는 한 가닥을 시계방향이나 반시계방향으로 비틀어서 말고 두 가닥 꼬기는 머리카락을 꼬아서 부드러운 빗줄모양을 만들어내며 두 번 꼬기는 두 가닥이나 세 가닥의 머리를 서로 엮어 비틀어서 탄탄한 빗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머리카락 가닥의 꼬는 크기와 텐션에 따라 모양의 크기가 결정된다. 크기와 텐션은 큰 가닥과 작은 가닥, 느슨한 가닥과 탄탄한 가닥으로 바꿀 수 있다. 매듭은 한 가닥 혹은 두 가닥으로 함께 엮거나 묶어 주는 기법으로 한 가닥으로 원형의 매듭모양을 만들고 두 가닥으로 함께 엮어 사슬모양의 효과를 낸다.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만들 수 있으며 매듭의 크기로 원모양의 크기를 결정한다.

겹치기는 두개의 머리카락을 서로 반대쪽 가닥위에 겹쳐 교차되는 효과를 얻는 기법이다. 두 가닥 아래로 겹치기는 교대로 위를 겹쳐 아랫방향으로 진행되고 두 가닥 위로 겹치기는 교대로 위로 겹치면서 위 방향으로 진행된다. 머리카락의 크기나 섹션의 크기에 따라 작은 섹션은 십자형 패턴을 증가하고 중간크기는 섹션크기가 증가하면서 십자패턴은 감소하고 큰 섹션을 겹쳐서 덮치는 효과가 있다. 뿔기는 세 가닥 이상의 머리카락을 교차하여 엮는 것으로 구성한다.

3가닥, 5가닥, 7가닥, 9가닥 뿔기 등이 있으며 양옆의 두 가닥이 한 가닥씩 더해지면서 교차되고 위로 뿔기와 아래로 뿔기가 있다. 고리는 머리카락을 접거나 구부리거나 둘러싸고 해서 동그란 모양으로 마무리 되어진 것이다. 고리의 크기, 위치, 모양, 수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고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 고리의 크기가 결정된다. 외 고리는 한 개의 고리를 만들어 고정하는 것이고 겹 고리는 두개 이상의 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고리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패턴은 복잡해진다.

롤은 원뿔이나 원통형의 모양으로 머리가닥 자체 내에서 싸여지고 감겨지는 머리로 만들어지며 전체축 선상의 어느 곳에서라도 위치할 수 있다. 롤은 전체축의 수직축을 따라 네이프에서 시작하며 위로 말아 올라가는 수직말기와 헤어라인에 따라 평행 또는 비평행한 곡면을 따라 말아 올라가는 윤곽말기가 있다. 머리의 길이에 따라 말기의 크기와 볼륨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색상이 있는데 색상은 질감과 부피를 만들어 주는 디자인 요소로써 일반적으로 인간의 오감각 중 시각은 사물인지에 70%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며 그 시각에 색이 70%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형태보다 더 직접적인 감각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¹⁴⁾

깊이(Depth), 입체감(Dimension), 질감의 착시(Illusion of texture)현상을 일으키는 디자인 요소를 디자인 내의 특정한 강조 부분으로 시선을 이끌어 줌으로써 생동감과 방향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머리카락의 색상이 어두우면 깊이감과 전체적인 형태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반면 더 밝은 색상은 형태내의 각각의 모양에 시선을 이끈다는 것에 주목한다. 머리색상의 혼합은 입체감과 질감의 착시 효과를 준다. 은은하고 미묘한 색상의 변하는 웨이브 패턴의 방향을 강조하고 강한 색상의 변화는 각각의 모양을 분리시킴으로써 흥미를 더해 준다.

저마다 특수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힘을 지닌 색은 일종의 언어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색의 이러한 언어적 기능성은 색이 감성적인 미를 구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색에서 받는 인상은 색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감정도 다양하다. 물론, 색채에 대한 이미지 연상과 감정은 성별, 국가, 민족, 계절,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느정도 보편성을 띤다.

14) Faber Birren, 이성민(역), <빛.색채.환경> (서울 : 기문당, 1994), p.88



<그림- 1> 질감 표현에 의한 디자인
 (출처 P.P UP-STYLE LONG HAIR교육자료)

2) 디자인과정¹⁵⁾

지금부터는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이미지를 결정짓는 시술상의 과정에 대해서 그 링과 분석해보도록 한다. 크게 가르마와 귀선, 실루엣의 밸런스, 볼륨, 시농¹⁶⁾위치에 따른 이미지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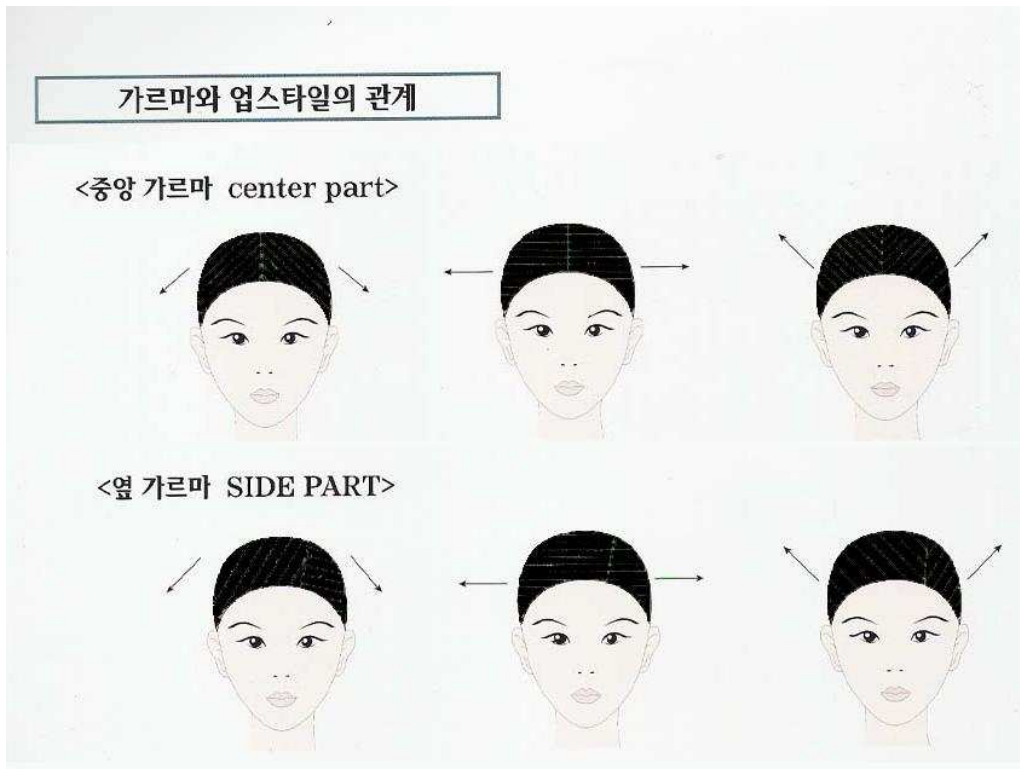
첫 번째는 가르마와 업스타일의 관계이다. 옛날 여인들은 가르마의 위치나 길이, 정교성에 따라 신분의 이미지와 미의 잣대로 삼아왔다. 현대여성의 업스타일 디자인에서도 곡선, 사선, 짧은 선, 긴 선에 따라 방향성, 분할성, 연속성이 좌우되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르마는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든 모델의 이미지나 성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기도 한다. 가르마의 위치나 빗질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는 분위기를 알아본다. 중앙가르마를 아래로 빗었을 때 둥글게 보이는 효과를 주므로 둥근 얼굴은 작아 보이고 긴 얼굴은 여성스럽게 보이고 역삼각형은 턱을 완만하게 표현해준다. 중앙가르마를 위로 빗어 올릴 때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므로 개성을 필요로 하는 둥근 얼굴에는 좋지만 긴 얼굴은 자칫 날카로워 보일 수 있다. 둥근 얼굴이나 긴 얼굴은 옆 가르마를 아래로 빗을 경우는 어려보이는 이미지이지만 얼굴이 크고 길어 보이며 역삼각형 얼굴에는 턱 선을 더 날카로워 보이게 한다.

가르마의 종류에는 커브섹션(curve section), 스트레이트섹션(straight section), 센터롱섹션(center long section), 사이드 워드섹션(side width section), 센타숏섹션(center short section), 탑워드섹션(top width section)이 있다. 커브섹션

15) 한성진의 UP&UP

16) 시농 (CHIGNON) : 틀어 올린 머리, 머리를 틀어 올리거나 업스타일에서 마지막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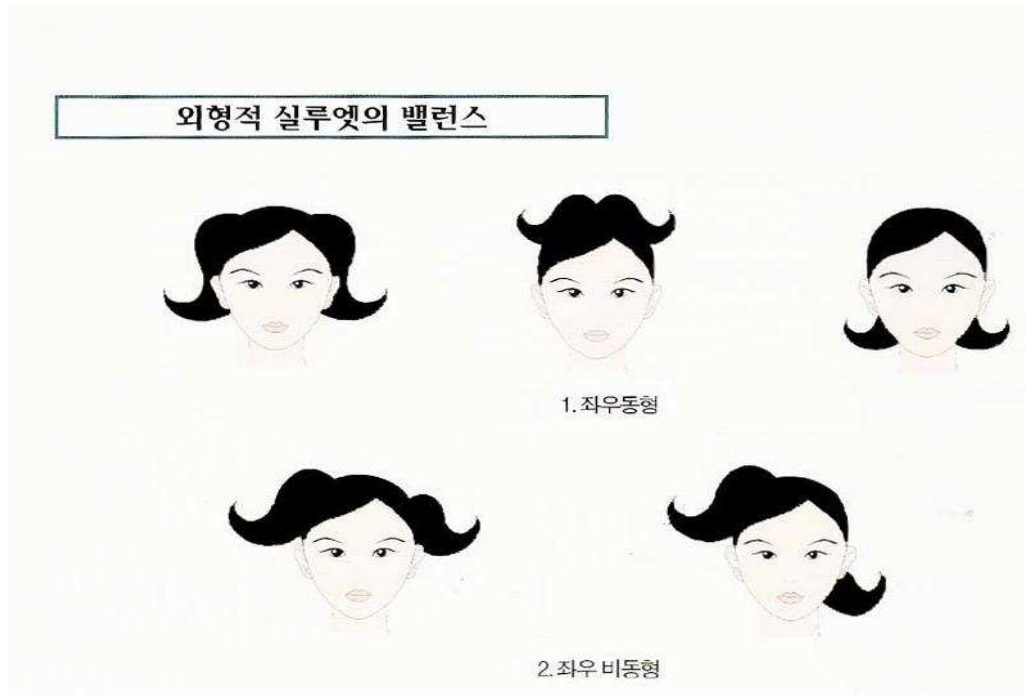
은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으로 전체적인 입체감을 주고 스트레이트 섹션은 안정감, 경직, 깔끔함을 주고 센타롱 섹션은 분할의 효과로 전반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사이드 워드섹션은 예술적으로 다양성이 있어보이고 센타 숏섹션은 짧은 가르마로 액센트를 주며 탑 워드 섹션은 여성적이며 여유와 고전적 분위기를 준다.



< 그림 - 2 > 출처 : 한성진의 UP&UP p.170

두 번째는 실루엣의 밸런스에 따라 장소나 때와 성격의 활용도가 달라진다. 좌우가 대칭인 좌우동형은 귀여움, 활동적, 깔끔, 안정적 분위기로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정리된 엄격한 분위기로 정적이면서 편안하게 보인다. 좌우가 비대칭인 좌우 비동형은 세련됨, 관능적, 패션적, 활동적 분위기로 질서를 잃은 느낌으로 긴장을 완화시키지만 젊음 분위기와 패션적 이미지를 돋보이게 한다.



< 그림 - 3 > 출처 : 한성진의 UP&UP P.176

세 번째는 시뮬 위치에 따른 이미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B.P(back point)는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며 불안정, 우울, 비애한 이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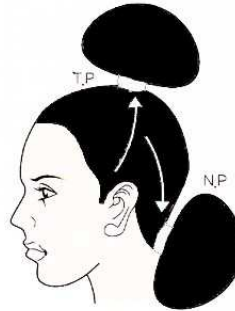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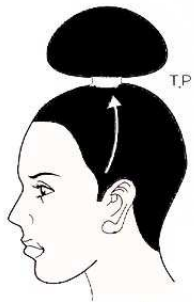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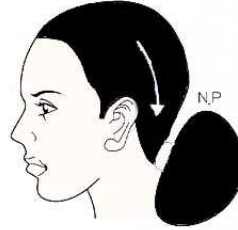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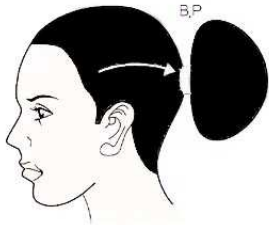
N.P(nape point)는 품위적. 안정, 정직, 온화, 엄숙한 분위기이다.

G.P(golden point)는 신비스럽고 감각적, 유연, 화려, 환상적이다.

F.P(front point)는 열정적, 화려함, 관능적이면서 명랑함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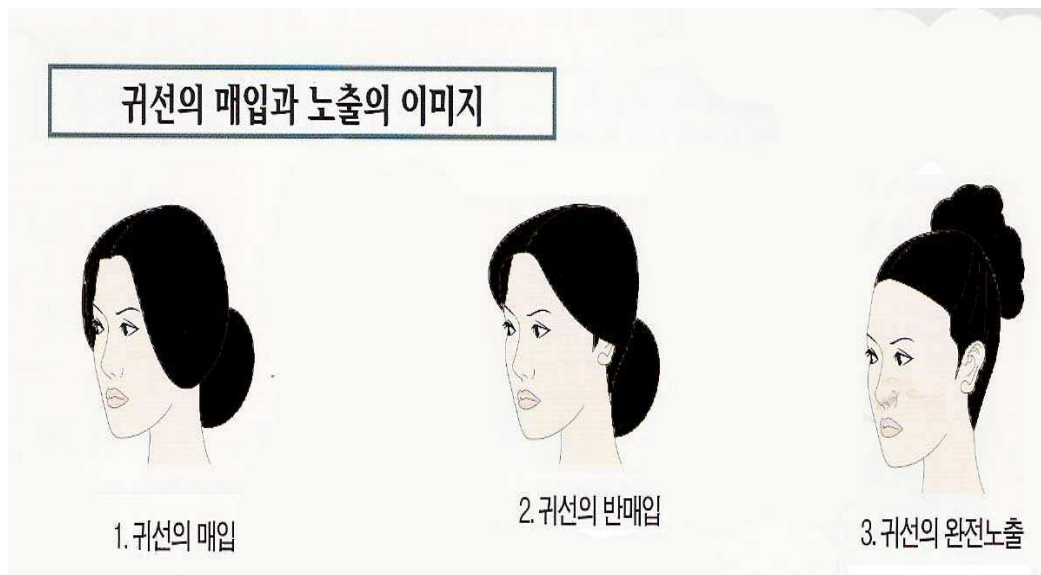
T.P(top point)는 적극적, 섹시, 화려하면서도 주관적인 느낌을 준다.

시농의 위치에 따른 이미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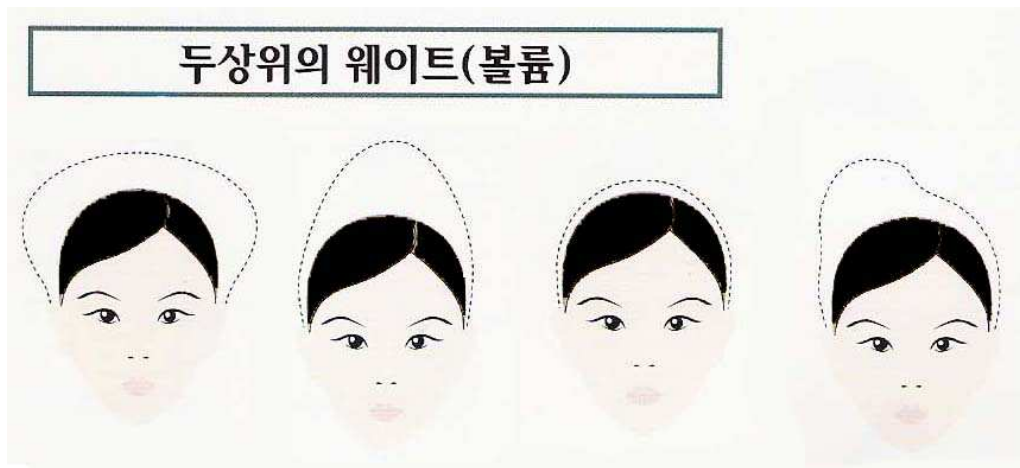
< 그림 - 4 > 출처 : 한성진의 UP&UP P.178

네 번째는 귀선의 매입과 노출의 이미지에 관한 것으로 귀선의 완전 매입한 경우는 세련된 느낌을 주지만 너무 느슨하게 연출하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귀선의 반매입한 경우는 중심적인 인물로 보여지며 안정적이고 격조있어 보이지만 옆선을 타이트하게 당겨 연출 할때는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애교머리를 활용해 주는 것이 좋으며 눈과 눈 사이가 좁을 경우에 좋은 방법이다. 귀선의 완전 노출은 자신만만하고 율동적이면서 튀는 듯한 이미지이나 자칫 단순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볼륨으로 포인트를 주고 두 귀가 눈썹보다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피하도록 한다.



< 그림 - 5 > 출처 : 한성진의 UP&UP P.173

다섯 번째는 두상위의 웨이트 즉 볼륨이다. 디자인에 있어 볼륨은 얼굴형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미적인 감각을 필요로 한다. 볼륨의 양과 넣는 형태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와 인상형성 등을 조화시키는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볼륨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스타일은 비대칭적으로 얼굴의 면적을 좁아보이게 하여 얼굴이 작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얼굴 폭보다 좁은 중심으로 디자인을 높게 표현하면 수직 상승의 효과도 얼굴이 작아 보이고 샤프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볼륨을 양옆으로 넓고 둥글게 표현하면 여유를 느낄 수 있다.



< 도 - 6 > 한성진의 UP&UP P.173

4. 헤어디자인 분석

얼굴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헤어스타일, 얼굴형, 얼굴의 선들, 즉 이마, 눈썹, 눈 코, 입, 턱, 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은 크게 둥근형, 네모형, 세모형으로 구분되며 이 세가지형을 세분하고 혼합하여 분류상 12형을 나누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정원형, 즉 얼굴의 둘레가 둥근 모양으로 둥근 사람의 상은 인상학적 혹은 이미지를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다 얼굴의 형태는 이마 상단부, 상부, 중부, 하부 등 네등분의 비율에 따라 넓은 얼굴, 좁은 얼굴, 긴얼굴, 짧은 얼굴로 나뉘어 지게 되고 이러한 얼굴 형태는 다시 표준형 얼굴(계란형 얼굴), 삼각형 얼굴, 원형 또는 각형 얼굴, 사다리꼴 얼굴, 직사각형 얼굴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¹⁷⁾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이미지와 어울리는 스타일, 색상, 선호하는 이미지 등 많은 요소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얼굴형을 중심으로 하여 얼굴형의 이미지와 스타일 업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접목하여 최상의 분위기를 연구하고 6가지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분류하여 때와 장소, 신분과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연구하도록 한다. 위 내용을 토대로 표2의 얼굴형을 분류해 보았다.

17) 권경애.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0. p.20

< 표 1 >얼굴구성요소 (출처.www.naver.com)

구성요소	화장	정보형태
얼굴영역	기초화장	영역,경계
눈썹	눈썹화장	영역,경계
눈	아이새도,아이라인	영역,경계
코	T존설정	위치
입술	립라인,립스틱	영역,경계
U존	기초화장	영역
T존	기초화장	영역

< 표 2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분석

	형태	이미지	보완점
마름모	광대뼈가 나오고 살이 없는 스타일	관능적, 의향적, 쾌활, 총명한 이미지	얼굴윤곽이 두드러지게 되면 성격이 차갑고 강하며 나이 들어 보임
사각형	얼굴폭의 길이가 비슷하고 넓다. 하관이 튀어나온 스타일	생동감, 안정적, 활동적 이미지	평면적인 느낌 남성적이고 강한 인상을 주어 부드러운 느낌이 다소 부족
삼각형	얼굴하부에 양감이 있는 스타일	우아함, 신비한 이미지	헤어라인이 일정하지 않으며 양광대뼈사이와 미간이 좁음
역삼각형	얼굴상부에 각이 있고 샤프한 턱선의 스타일	화사하고 어리고 소녀이미지와 성숙한 이미지를 동반	신경질적으로 보일 수 있음
타원형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고 코가 길음	우아함, 성숙한이미지	정적이고 나이 들어 보임 이지적인 느낌 부족
등근형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등근 스타일	어려보이고 동양적, 귀여운이미지	평면적이며 불과 턱선이 넓고 헤어라인이 둥글다

(출처. 강경화. <현대메이크업총론>p.32-33, www.naver.com)

1) 얼굴이미지에 따른 올림머리

이미지란 용어는 리프먼(Walter Lippman,1921)¹⁸⁾의 퍼블릭 오피니언에서 인간이 자극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상이란 의미를 시작으로 하여 학술용어로서의 이미지 개념은 1950년대부터 주로 심리학에서 다루어져왔다.

이미지는 ‘관리’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자신의 실체를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보여주는 단순한 자기표현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자아와 일치되는 공적 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는 인상을 통제하는 행위, 즉 의도적인 자기 연출인 것이다.¹⁹⁾

① 귀여운 이미지(Cute image)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스타일로 머리카락 길이가 길지 않게 하고 웨이브 헤어를 만들어 끝을 쉼이 지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가운데 가르마를 하여 깨끗하게 넘겨주는 것이 잘 어울리며 뽕은 머리카락이 꼬는 머리가 큐트한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먼저 얼굴이미지는 온화하며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타입으로 젊어 보이는 장점이 있다. 머리카락은 대개 밝은 갈색으로 윤기가 나며 얼굴형은 비교적 작으며 동글다. 피부는 투명하고 윤기가 나며 맑고 밝은 노란빛을 띤다.

18) Water Lippman, Public Opinion,(New York : Harcourt,1921), p.8

19) 주경미. 이미지/인상관리에 대한 인식과 동기 연구. 건국대학교. 2005. p.5

② 우아한 이미지(Elegance image)

프린세스 풍의 스타일의 유행으로 우아함이 강조된 스타일을 많이 선호한다. 뒷머리의 한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트위스트 업스타일로 연출하고 한쪽으로 부드럽게 웨이브를 주어 어깨 아래 부분에 늘어뜨려서 언밸런스한 이미지를 강조해 감각적인 분위기를 살리고 사선으로 앞가르마를 차분하게 머리에 붙이고, 전체적으로 완만한 원의 느낌이 나게 업 시킨다. 목선이 예쁘게 살아나는 업스타일로 시논의 위치를 크라운을 이용하여 귀족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연출한다.

먼저 얼굴이미지는 차가우면서도 부드럽다. 편안함을 주는 장점과 단아하고 지적이며 기품이 있어 만인에게 호감을 주며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세련된 백인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눈동자는 밝은 갈색을 띠며 눈빛은 약하지만 눈의 표정은 부드럽고 피부는 보송보송하고 뽀얀 흰빛을 띄며 피부색에 핑크기운이 돌며 피부에 윤기가 없을수록 우아한 이미지 성향이 강하다.

③ 로맨틱한 이미지(Romantic image)

기품이 느껴지는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가운데 가르마를 탄 후 앞머리와 옆머리를 뒤로 넘겨주고 뒷머리는 웨이브를 주어 한쪽으로 길게 늘어뜨려 자연스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화사한 분위기에는 진주나 코사지 장식 등을 하고 장식을 전혀 하지 않아도 더욱 로맨틱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얼굴이미지는 동남아시아 계통의 이국적인 매력을 풍긴다. 낭만적인 스타일이기도 하며 눈매는 부드럽고 깊으며 암갈색 헤어와 눈동자를 많이 띄고 매우 약한 눈빛이다. 피부는 윤기가 없고 어두우면서 붉은 빛을 띤다.

④ 캐주얼 이미지(Casual image)

캐주얼적인 스타일은 실용성을 강조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연출하기 쉬운 간단한 스타일을 말한다. 한손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두상의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면 클래식함을 주고 아랫부분에 만들면 내추럴한 느낌을 준다. 포니테일 업스타일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은 후 묶인 머리로 촘촘히 쌓아 푼 후 올려 주거나 핀으로 고정해 부스스하게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거나, 끝부분을 살짝 안으로 말아 준 후 스타일링해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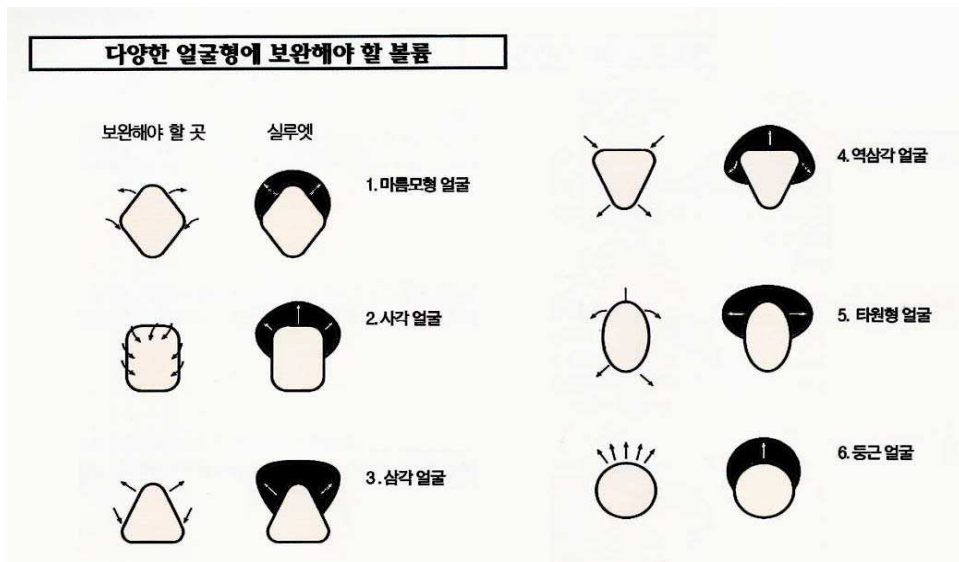
먼저 얼굴이미지는 생동적이고 약동적이며 귀엽고 발랄하며 주위 분위기는 살려주는 장점이 있다. 표정이 풍부하고 웃는 얼굴로 낙관적인 성격이 장점이다. 눈동자는 갈색이며 눈빛이 강해 생기 넘쳐 보이고 투명한 피부에 윤기가 돌며 약간은 어둡지만 맑은 노란빛을 띤다.

⑤ 도시적인 이미지(Shic image)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은근한 매력을 발산하는 현대적인 도시여성의 느낌으로 옆가르마를 타서 하나로 하여 올백스타일로 깔끔하게 하고 나머지 머리가닥은 둥글게 고리를 만들어 하나로 원형을 만들어 준다. 낮지만 깔끔하고 단정하여 커리어우먼의 대표적 이미지이다. 눈동자는 암갈색을 띄고 눈에서 빛이 나며 눈의 흰자위는 투명하면서 희다. 머리카락은 암갈색으로 윤기가 많고 피부에 푸른 기가 살짝 돌고 피부색은 약간 누런 색이며 피부결은 매끈하다.

2)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

모발의 빗겨나간 선과 모양새에 따라 젊게 나이 들어 보이게, 촌스럽게 화려하게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같은 스타일에도 얼굴형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얼굴형과 때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 연출하기 위해 위의 얼굴형을 토대로 6가지 얼굴형에 대해 디자인해 본다.



< 도 - 7 > 한성진의 up&up p.174

① 마름모형 얼굴

얼굴에 광대뼈가 약간 나오고 살도 없는 스타일로 관능적, 외향적, 총명함, 느낌을 주지만 얼굴윤곽이 두드러지게 되면 성격이 차갑고 강하여 나이 들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므로 외향적이고 쾌활한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 전체적인 실루엣을 구성적 감각으로 형을 크게 하고 얼굴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원형의 질감을 살려야 부드러워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고 길게 보일 수 있다. 턱 부분의 볼륨을 살리고 턱 부분을 완만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스타일이 좋으며 옆 가르마는 턱 선이 더 날카로워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한다. 주변의 눈이나 입술에는 포인트를 주고, 입술은 대담한 색으로 크게 강조하며 뺨에는 하이라이트를 주어 완만하고 부드러워 보이도록 해야 한다. 눈썹은 각이 지지 않게 눈썹 모양을 그대로 살려 자연스럽게 그리되 너무 가늘면 인상이 더 차갑게 보이므로 조금 두껍게 표현하고 오렌지색 같은 새도우로 화사하고 밝은 느낌의 색을 주면서 릿라인은 실제보다 약간 크게 그린다.

② 사각형 얼굴

얼굴 폭의 길이가 비슷하고 넓기 때문에 평면적인 느낌을 주지만 하관이 튀어나와 있어 생동감 있고 안정적이며 활동적인 이미지를 보이지만 양턱의 돌출로 인해 남성적이고 강한 인상을 주어 부드러운 이미지는 다소 부족하다. 강한느낌의 사각형을 둥그스런 느낌을 갖는 구성적 볼륨으로 해주어야 하고 안정감과 평면적으로 밝은 얼굴형의 인상으로 부드러운 아웃라인을 잡아 둥근 입체감을 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날카로운 인상이므로 곡선의 언밸런스한 가르마가 잘

어울리고 귀여운 스타일의 중간 길이나 퍼머넌트 웨이브로 전체적인 볼륨을 주고 길게 늘어뜨리는 스타일과 복고형처럼 윗머리만 볼륨을 주는 스타일은 피하도록 한다. 자신의 피부톤과 비슷한 피부톤으로 표현하되 T존 부위에 하이라이트를 이마와 턱에는 쉐딩을 코에는 노우즈 쉐딩을 넣어주어 세로의 길이는 강조하고 각을 없애며 부드러워 보이게 표현한다. 입술은 약간 도톰하게 그리고 중앙에 립글로스를 발라주어 하이라이트를 줌으로서 양감을 준다. 눈썹은 약간 올라간 화살형과 아치형 눈썹을 쉐도우는 밝고 따뜻한 색으로 눈 꼬리쪽에 부드러운 음영을 주어 자연스레 그라데이션 한다. 광대뼈의 약간 아래 귀 중앙에서부터 입 꼬리 쪽 방향으로 시선이 되게 볼터치 해준다.

③ 삼각형 얼굴

이마가 좁고 턱뼈가 나오거나 하관부에 살이 많은 얼굴형으로 상부에 양감을 주어 볼륨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원심적 감각의 볼륨이 하부의 무게를 커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나고 턱선 보다 넓게 사이드 볼륨을 잡아 한결 더 얼굴을 밝고 부드럽게 가볍게 보이게 한다. 시선은 얼굴 위쪽에 들 수 있도록 탑을 강조하고 부드러운 웨이브는 잘 어울리지만 강한 웨이브는 삼간다. 얼굴선을 머리로 가리지 말고 완전 노출시켜 부드럽고 시원하게 디자인 한다. 앞가르마를 탄 다음 깨끗한 올백스타일을 하면서 성숙한 분위기와 위쪽 머리에 볼륨을 주어 균형 있게 연출하는 것이 좋다. 탑 부분에는 큐빅 장식이나 헤어피스로 자칫 밋밋해 보이는 결정을 포인트로 보완한다. 피부톤은 밝게 하되 이마와 뺨, 관자놀이 주위는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체감을 주고 턱에는 자연스러운 쉐딩으로 각을 완화시켜준다. 눈썹은 짙은 직선 형태로 상부에 시선을 주고 최대한 부드러워 보일 수 있도록 바이올렛이나 브라운 색상의 색조로 쉐도우를 해주어 신비하면서 우

아한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이 좋다 입술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입체감을 준다.

④ 역삼각형얼굴

얼굴선 자체는 넓지만 귀밑부분부터 턱까지 삼각형으로 뾰족한 것이 특징이며 각이진 얼굴 상부에 동그랗고 부드러움을 표현한 것과 같은 실루엣을 만들면 부드러워 보이면서 샤프한 턱선과의 어울림을 갖게 되므로 화사한 느낌을 더 살릴 수 있고 굵은 웨이브를 주면 작고 심플한 소품으로 장식하여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턱 부분은 볼륨을 살리고 옆 가르마가 어울림.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얼굴은 귀엽고 세련된 이미지로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로 내츄럴 메이크업시 어리고 소녀이미지와 진한 메이크업시 모던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공유한다. 피부 표현은 T존과 눈밑을 밝게 표현하도록 하이라이트를 주고 홀쭉한 뺨 부위를 밝게 표현하여 뺨이 통통해 보이도록 한다. 눈썹은 길게 완만한 곡선의 갈매기형으로 그리고 핑크와 오렌지 색상으로 쉼도우 한 다음 턱선에 하이라이트로 양감을 준다. 볼터치는 광대뼈 약간 위쪽에서 코끝을 향하도록 터치하며 메이크업을 완성하였을 때 얼굴형의 수정으로 전체의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 타원형 얼굴

정적인 느낌으로 우아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보다 길어 보이는 얼굴형태이기 때문에 수평한 느낌으로 볼륨을 주어 길이를 축소해 보이도록 양감을 준다. 세로폭은 절대 강조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단점을 보완, 웨이브로 볼륨감과 클래식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모발 끝 눈썹 끝과 눈 꼬리에 평행하게 빗기며 양쪽 볼륨을 주고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 길이가 짧아지게 하고 목덜미 아래에 중심을 두되 가로로 넓게 만든다. 눈썹은 일자형에 가깝게 자연스

러운 굵기로 약간 짧은 직선으로 표현하고 꼬리부분이 쳐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새도우는 눈꺼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향해 짙은 색 오렌지나 퍼플계열로 수평적인 느낌을 준다. 입술은 본래의 크기보다 가늘고 길게 그려 단점을 보완하고 둥글게 하며 부드러운 인상을 연출하고 오렌지 계열과 중앙의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체감 있게 표현한다. T존부위와 눈밑부위는 1~2톤 밝은 컬러로 넓게 하이라이트를 주고 이마와 턱은 짙은 새도우로 길이를 축소해 보이도록하고 코끝에도 약간 넘어 주어 코 길이가 짧아 보이게 한다. 치크 컬러의 형태에 따라 다른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얼굴형이므로 꼭 하도록 하고 광대뼈를 중심으로 최대한 가벼우면서 조금 넓고 둥글게 볼터치 해준다.

⑥ 둥근형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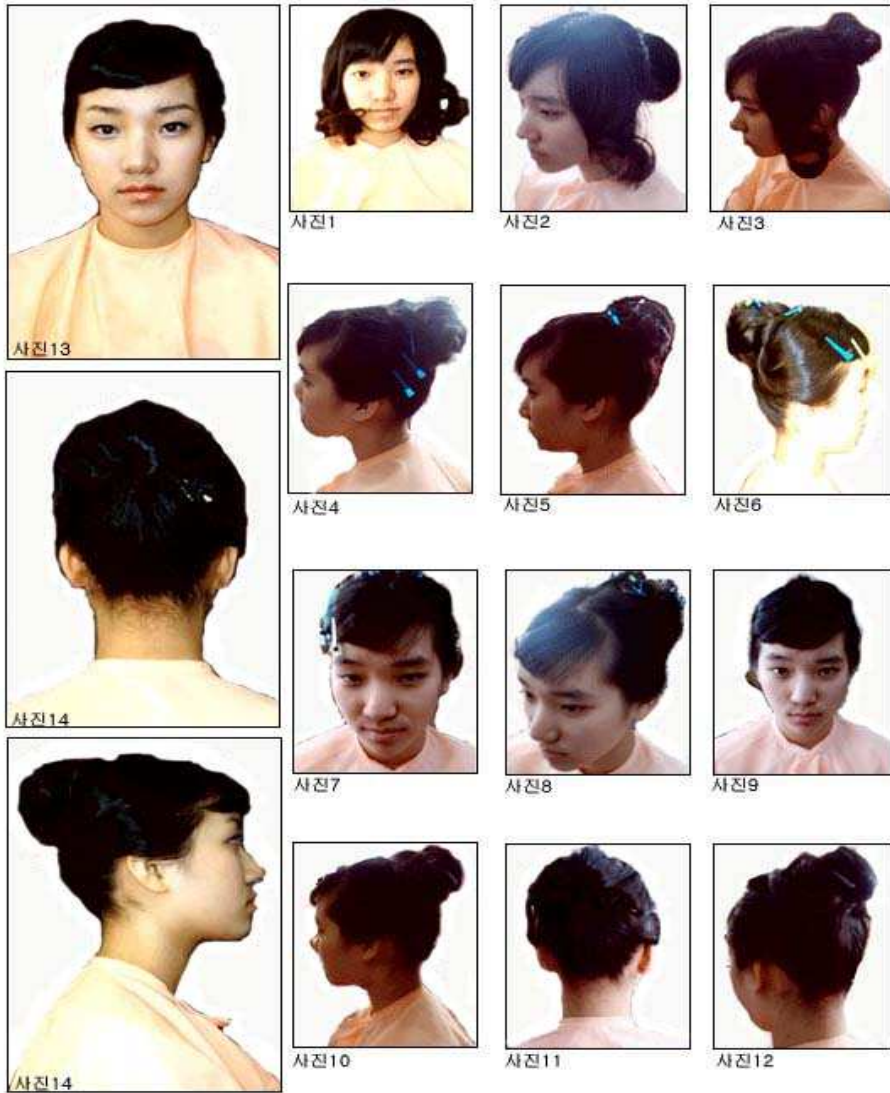
뺨에 살이 많고 이마와 턱이 좁은 얼굴형으로 통통한 뺨의 윤곽을 가름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얼굴의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표현 한다. 대체적으로 동양인의 얼굴형으로 어려보이면서 귀여운 이미지를 준다. 전체적인 원심적 감각의 실루엣이 맞는 얼굴형이다. 그러나 너무 간결하게 하지 말고 실루엣의 외형에 변화를 유도하여 둥근 느낌을 흡수하고 빅뱅스타일로 짧게 내려 앞머리는 얼굴이 더 동그랗게 보이므로 피하도록 한다. 눈썹 끝과 눈 꼬리 옆 모발의 평행선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눕추어 빗고 후두부는 정수리보다 높거나 목덜미에 눕추어서 정리한다.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웨이브보다는 생머리를 이용하여 올려준 다음 뺨치도록 연출하는 것이 좋으며 뺨침 머리가 다소 지지분해 보일 수 있으므로 헤어악세사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아이라이너는 굵게 그리고 마스카라도 꼼꼼하게 하며 크고 또렷한 눈매를 만든다. 입술은 퍼플이나 레드와 같은 강

한 색상을 발라 주어 완만한 턱선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마와 턱 주위는 세로로 길게 하이라이트를 주고 귀 윗부분에서 부터는 세로로 길게 블러셔 한다.

5. 스타일연구과정

여기에서는 이미지에 따른 디자인과정을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로맨틱한 이미지



(1) 로맨틱한 이미지(romantic image)

올림머리 테크닉(up-style technique)

사진 1. 롱 미디움 기장의 헤어.

사진 2. T.P에서 E.P까지 전체 메쉬를 탑에 포니테일로 묶는다.

사진 3. 묶은 머리카락을 셋으로 나누어 하나씩 판넬을 루프로 정착시킨다.

사진 4. 사이드의 머리를 탑쪽으로 트위스트(twist)하여 올린 후 탑에 뱅처리

사진 5. 사진4가 완성된 모습.

사진 6. 앞머리를 매직 아이롱을 이용하여 C컬을 만든 후 사이드에 연결한다.

사진 7. 사진 6과정 앞모습.

사진 8. 사진 6.7이 완성된 모습. 사진 9. 앞쪽의 실루엣이 완성된 모습.

사진 10. 핀컬 핀을 빼고 정리한 옆모습.

사진 11.12. 잔머리와 실루엣을 정리한 후두부. 사진 13. 완성된 정면.

사진 14. 완성된 측면. 사진 15. 완성된 측면.

메이크업 테크닉(make-up technique)

BASE. 로맨틱함을 표현하기 위해 두톤정도 밝은 피부톤으로 정리하고 컨실러를 사용하여 이마부분의 많은 여드름을 정리하였고 T존 부위 하이라이트를 주었다. 뺨 전체를 핑크색 계열로 약간 둥글게 터치하였다.

EYE. 깔끔하게 정리한 눈썹은 부드러운 갈색으로 하고 핑크와 보라색의 색도를 한다음 눈밑에 화이트 펄로 포인트를 주었다. 마스크라와 아이라인을 꼼꼼히 하여 또렷한 눈매를 완성. LIP. 핑크계열 립글로스로 마무리.

(2)캐주얼 이미지



사진8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9



사진7



사진10

(2) 캐주얼 이미지(casual image)

올림머리 테크닉(up-style technique)

사진 1. 롱 스트레이트 헤어.

사진 2. 업스타일 하기 편하도록 세팅후 푼 모습.

사진 3. 탑부분에 포니테일을 만든 후 세 개의 너트를 만든다.

사진 4. G.P에서 네이프선까지 반으로 나누는 후 오른쪽 판넬과 왼쪽 판넬을 교대로 오버랩 시킨다.

사진 5. 네이프 양옆에 남겨둔 머리로 후두부에 뱅을 만든다.

사진 6. 사진 5까지 완성된 측면 실루엣.

사진 7. 아이롱의 글루브를 이용하여 뱅을 만든다.

사진 8. 완성된 정면.

사진 9. 완성된 측면.

사진 10. 완성된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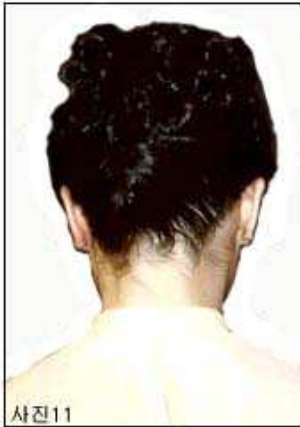
메이크업 테크닉(make-up technique)

BASE. 피부톤은 그대로 유지하고 핑크와 오렌지계열을 믹스해 부드럽게 볼터치 해 준다.

EYE. 아치형의 눈썹을 그대로 살려 그리고 스카이 블루 톤의 새도우와 아이라인을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 쌍꺼풀이 없는 눈매를 캐주얼한 느낌으로 살렸다.

LIP. 오렌지 립칼라를 바른 후 투명 립글로스로 윤기를 주었다.

(3)도시적 이미지



(3) 도시적 이미지(career image)

올림머리 테크닉(up-style technique)

사진 1. 스트록 커트(stroke cut)한 머리에 층을 많이 낸 머리로 전면 탑부분을 제외하고 골덴 부분과 크라운 부분에 두피 가까이 백코밍하여 타원형의 큰 원을 만든다.

사진 2. 네이프 사이드 메쉬 하나를 오른쪽으로 교차시켜 고정하고 다른쪽도 왼쪽으로 교차시켜 고정시킨다.

사진 3. 짧은 머리로 부족한 후두부의 볼륨을 살리기 위해 U자핀에 만들어 놓은 피스를 10개정도 꽂아 준다.

사진 4. 사진3까지 완성된 측면.

사진 5. 사진 3까지 완성된 뒷면.

사진 6. 얇은 매직을 이용하여 후론트 머리를 복고형으로 컬을 준다.

사진 7. 사이드 부분에 뱅을 만들어 핀컬로 모양을 만든후 유소핀으로 정착시켜 준다.

사진 8. 사진7과 같게 반대편도 해 준다. 사진 9. 완성된 정면.

사진 10. 완성된 측면. 사진 11. 완성된 뒷면.

메이크업 테크닉(make-up technique)

BASE. 피부톤은 밝고 희게하고 컨실러를 이용하여 잡티를 제거하고 각이진 광대뼈와 턱주변을 웨딩하여 부드러운 윤곽을 만든다.

EYE. 눈썹은 약간 갈매기형으로 또렷하게 라인을 정리하고 그레이를 전체세도우로 퍼바른 후 블랙으로 눈에 포인트를 준다. 속눈썹과 아이라인을 하여 또렷하고 깔끔하게 정리한다. LIP. 진하지 않은 오렌지 빛 립글로스로 마무리 한다.

(4)우아한 이미지



(4) 우아한 이미지.(elegant image)

올림머리 테크닉(up-style technique)

사진 1. 숏 미디움 기장에 전체 아이롱으로 컬을 준상태.

사진 2. 양옆의 헤어라인을 따라 볼륨을 주면서 사이트에 고정시킨다.

사진 3. 골덴 부분과 백부분의 웨이브를 정리하여 그대로 볼륨을 살린다.

사진 4. 후론트 부분에 백코밍을 하여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모양을 만들어 좌우 균형을 정리한다.

사진 5. 짧은 네이프와 네이프 사이트의 머리를 컬을 살려 핀컬핀으로 고정한 후 스프FP이를 뿌려 정착시킨다.

사진 6. 전면 실루엣.

사진 7. 측면 실루엣.

사진 8. 완성된 정면.

사진 9. 완성된 측면.

메이크업 테크닉(make-up technique)

BASE. 피부톤을 밝게 하고 잡티를 가리되 본래의 핑크기운을 살려서 표현한다.

EYE. 부드러운 눈썹선과 밝은 퍼플계열로 베이스 새도우 한 후 그린으로 포인트 한다. 아이라인과 속눈썹을 붙여 약한 눈빛을 또렷하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LIP. 누드베이지에 오렌지 빛으로 마무리 한다.

(5)귀여운 이미지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9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5) 귀여운 이미지.(cute image)

올림머리 테크닉(up-style technique)

사진 1. 동그랗고 큰 얼굴에 올프 컷으로 짧은 헤어 스타일.

사진 2. 후론트 부분에서 사이드를 남겨두고 탑쪽으로 빗어 올려 핀컬핀으로 고정한다.

사진 3. 네이프 사이드의 머리도 탑쪽으로 끌어 올려 고정하여 웨이브 피스를 상(망)으로 이용하여 볼륨을 만들어 준다.

사진 4. 남은 웨이브 피스를 꼬아 말아 올려 보비핀으로 고정 시킨다.

사진 5. 앞머리는 왁스로 짝게 붙여 고정한다.

사진 6. 사이드의 머리를 귀양옆에 뱅을 만들어 정착시킨다.

사진 7. 언밸런스한 정면 실루엣.

사진 8. 완성된 실루엣.

사진 9. 완성된 정면.

사진 10. 완성된 측면.

메이크업 테크닉(make-up technique)

BASE. 밝고 희게 표현하고 붉은 빛으로 볼터치한다. 얼굴 윤곽을 작게 하기 위해볼과 턱 부분에 섀딩하고 T존 부위와 Y존 부위에 하이라이트 하여 입체감을 준다.

EYE. 옐로우와 그린을 이용하여 섀도우 하고 아이라인으로 눈 꼬리를 살짝 올려준다.

LIP. 오렌지와 핑크를 적절히 믹스하여 글로시 하게 표현한다.

Ⅲ. 결 론

올림머리는 모발을 두상에 올려 갖가지의 모양을 만들어 핀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우아함과 여성스러움, 귀여움, 성숙함, 깔끔함등의 정서를 갖는 예술형식이다.

위의 과정들을 볼 때 신분적 표시와 권위적인 것으로 자아표출감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의 문화예술이다.

얼굴의 특징, 오류, 길이 등의 총체적인 분석을 하고 어떤 스타일로 완성하느냐에 따라 시술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방법을 숙지해야한다.

얼굴형의 조건은 사각형, 긴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으로 나뉘고 기호조건은 귀여운이미지, 우아한이미지, 로맨틱한이미지, 도시적이미지, 캐주얼 이미지로 나뉘었다. 갖추어진 조건과 원하는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디자인을 결정 하는데 크게 형태, 질감, 색상으로 나뉘며 형태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결정지게 되고 크기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질감은 패턴화된 느낌이나 매끈한 느낌 등 표면의 질을 결정짓는데 고리, 말기, 직모, 땀기, 꼬기, 겹치기나 이 들을 혼합하는 방법도 있으며 색상은 깊이감이나 포인트에 활용을 하는데 입체감과 질감의 착시효과를 준다.

결정되어진 디자인에 메이크업을 적절히 잘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국내의 문헌적 바탕으로 보아 헤어 디자인 행위가 특정인을 위한 신분표시의 일환으로 권위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는 문화 향상과 더불어 미적 욕구가

생겨났고 다양한 디자인이 발생되면서 요즘 선진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생활의 윤택함과 여유로움으로 격식이 필요한 모임, 가령 수준 있는 음악회나 가족모임, 행사등에 한복이나 정장과 함께 깨끗이 정리한 업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에 부합하여 자신의 얼굴형이나 메이크업을 중요시 하며 독창성을 강조하는 업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디자인 요소 어느 한 가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은 매우 다차원적이다. 헤어스타일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디자인의 요소인 형태, 색채, 질감이므로 먼저 각 요소가 형성하는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디자인 구성에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이미지 창출이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업스타일의 접근의 용이성을 돕고 독창성과 창의성, 창작성을 요구하는 일반화된 디자인 숙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연출과정 중 전문적이면서 쉽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가네보우 미용연구소.화장을 잘하는 여성이 왜 일도 잘하는가? . 1995
- 강영숙외 4명공저. 웨딩헤어디자인. 훈민사. 2004
- 김나의.류지원.이성옥.장미화. 이미지 메이킹. 수문사. 2002
- 김세환. 토탈 메이크업. 도서출판사 우. 1999
- 김창준. 메이크업&하이헤어. (주)라사라 패션정보. 2002
- 김화숙.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 권영걸. 디자인 원론. 형설출판사. 1993
-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 박춘심. 메이크업. 광문각. 2001
- 비키박. pro-cosmetology미용학. 한림미디어. 2000
- 신부선의 5명공저. UP&STYLELING. 광문각. 2004
- 신재원. 시각심리학. 학지사. 1995
- 이상근. 헤어컷 디자인. 형설출판사. 2001
- 임연웅. 디자인 총론. 형설출판사. 2001
- 장선일의 5명공저. 미용학 개론. 광문각. 2005
- 정현진의 5명공저. 미용문화사. 광문각. 2004
- Faber Birren. 빛.색채.환경.(이성민.역) 기문당. 1994
- 황윤정.김지희.정윤희공저.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2005
- 홍대식. 사회심리학. 청암미디어. 1998

〈참고논문〉

강남순. 신부 업스타일의 시술 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석사논문.2005

권경애. 눈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2000

김성영. 형태와 색채가 헤어스타일 이미지 및 얼굴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5

문재원. 자연의 유기적 형태 표현에 관한 헤어 디자인 연구. 용인대학교석사논문 2005

주경미. 이미지/인상관리에 대한 인식과 동기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허순득. 인상학에 따른 이미지 메이크업의 표현 기법. 한성대학교 석사논문.2004

〈기타자료〉

www.topimage.co.kr/persona

www.pivotkorea.co.kr

www.hairworld.co.kr

www.hair-korea.com

www.beuinfo.co.kr

www.hairmania.co.kr

www.nojum.co.kr

www.hyangjang.com/200202/b-02

<http://kr.blog.yahoo.com>

<http://blog.daum.net>

<http://www.koreacosmeticnew.com>

<http://www.upstyle.co.kr>

<http://www.makeupforeverjeju.co.kr>

<http://beauty.ac.kr>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Encyber.com

pivot point. long hair design.

pivot point international,inc.,2003

pivot point. the scientific approach to hair design.

pivot point international,inc.,2003

ESTETICA 2005. KOREA

ESTETICA 2004. KOREA

VOGUE 2005. ITALIA

VOGUE 2004. ITALIA

ABSTRACT

Research on the make-up according to hair up-style

- center about face image & features -

Han, Hyun Jung

Department of The formative arts

Major in Make-up & stylist Make-up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mportance and necessity about individual's image or impression care were already generalized and universalized. Trying to change and keep own images and monitoring of other's response is called impression management in social psychology. This kind of image management is defined as control process to manage own impression that is recognized to another persons in social psychology.

Impression management which is more accustomed as terminology 'image management' in our daily life is part of forming own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elf-control to achieve own targets. Impression management is recognized as a connection of self-control, managing good relationship through self image consulting, expressing own beauty and best status and helping to complete own sensual style.

In this paper, make up by hold-up hair style face is examined laying stress on image and figure of face, focus of impression formation, first among body parts,

In chapter 1,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hold-up hair styles and

make-up is explained by background to the times and pictures. Also, necessary components in hold-up style is described and design process is investigated with utilizing the professional materials called < up&up by Han, Sung Jin> to help comprehension.

In chapter 2, five face images (cute image, elegance image, romantic image, casual image and city image) and six face shapes (diamond shape, quadrilateral shape, triangle shape, inverted triangle shape, oval shape and round shape) to express design are arranged and matching style and complementary point are groped through analyzing form.

In chapter 3, it is expressed that process of design about suitable technique in each models' image on the basis of study findings.

Method of study of this paper classifies and analyzes laying stress on face style and face image revolving around literature investigation or professional beauty books and this paper does not achieve harmony because it is studied only by face shape and image.